

후국일

주간지

기본 - 2주차

오 르 비
후 국 일
김 민 수

후국일(김민수)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학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약력

現)대치 오르비 국어영역 강사

現)오르비 클래스 국어영역 강사

前)비원에듀 그룹 국어과 대표강사

前)라벤하임 국어 논술학원 팀장



상담&질문
연락처 : 01040237163
카톡ID : hhhm7163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실 수험생 여러분께 전하는 글]

저는 젊습니다.

하지만 단연컨대 젊기만한 강사는 아닙니다.

심지어 **젊기까지한 강사**입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치열한 1년을 보낼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여러분보다 더 치열한 1년을 보낼 강사**가 될 겁니다.

화려한 마케팅으로 도배된
사교육 시장에서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공감**되는 강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실속**있는 강의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앞으로 1년 잘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젊기까지한 국어강사**

후국일 김민수 올림.

수업 복습 자료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7.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미
- ②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위해 장자가 제시한 수행의 방법
-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위한 정적 상태의 극복
-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그 상보적 관계에 대한 장자의 견해

18.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겠군.
- ②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하겠군.
- ③ 마음을 바깥 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아를 잊는다는 것과 같겠군.
- ④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되겠군.
-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는 말이군.

19. <보기>에 나타난 순자의 입장에서 윗글의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둔다. 그는 인간의 질서와 혼란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인간은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자의 말처럼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
- ③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
- ④ 만물에 대한 분별 작용이 사라지는 것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하는 것으로는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미혹(迷惑)된
- ② ㉡: 수용(受容)하고
- ③ ㉢: 탈피(脫皮)하여
- ④ ㉣: 출현(出現)할
- ⑤ ㉤: 초월(超越)하여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莊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인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 호접몽 이야기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하나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기이한 새의 뒤를 ㉠ 흘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제자에게 들은 남곽자기(南郭子綦)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달리 말해,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며 흔히 명경지수(明鏡止水)의 비유로 표현되는 정적(靜寂)의 상태를 뜻한다.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에서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대상에 꼼짝없이 종속되어 괴로움이 증폭된다고 장자는 생각한다. 한편 편협한 자아를 잊었다는 것은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자는 이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장자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개체로서의 자아를 ㉤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한다는 '물아일체'로 호접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 - [] -> ->

2 - [] -> 4 -

3 - [] -> 4 - 가

5 - 가 ->

1 가 . ?" " [] ->

2] ->]가 [])

[] [] 가 -> " "가

1] 가 -> 가

1] -> [] + [] ->

2 1 2가 가 2 1 가

[] -> [] = , ,]

-> = = + =

2] -> = -> X]

3 1 2가 가 .3 [2 가]

[] -> []

-> = = = X =]

3] -> = -> O]

4 1 2~3 [] [] [])

가 1 [] [] [])

1) = -> ,

2) = = 가 ->

-> 1 [] [] [])

4] -> 2~3 [] [] [] <->

5 5 4 [] 가 [] [] -> []

-> 가 -> [] [] -> [] []

-> 가 -> -> 가] 1 가

5] -> [] -> [] [] -> -> =

-> 2가 [] [] -> -> =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울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 **‘위험 사회’**라고 규정할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1.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체화 현상의 다양한 양상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며 그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 ③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의 한계와 의의를 평가하였다.
- ⑤ 개체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22. **현대의 개체화 현상**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노동자들이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 ②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
- ③ 개인의 거주 공간이 가족 공동의 거주 공간에서 분리되는 추세도 포함한다.
- ④ 벡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의 유대를 모색하게 하는 조건이다.
- ⑤ 바우만의 관점에서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이다.

23.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위험 요소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진 현대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개념이다.
- ② ㉡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체의 속성에서 유추하여 사회에 적용한 개념이다.
- ③ ㉠과 ㉡은 모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 ④ ㉠과 ㉡은 모두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 ⑤ ㉠과 ㉡은 모두 위험의 공간적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2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쫓아내거나 몰아냄.
- ②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 ③ ㉢: 걸음으로 나타냄.
- ④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⑤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개체화'라고 한다.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의 개체화 현상을 사회적 위험 문제와 연관시켜 진단한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사실 사회 분화와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지속된 현상이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등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등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벡과 바우만은 개체화의 이러한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들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뭇 다르다. 먼저 벡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로 진행된 현상이라고 본다. 벡은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이를 ㉠ 방치(放置)함으로써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 위험 사회라고 규정하는 바 있다.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벡의 관점이다. 그런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 연대(連帶)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벡은 그들이 과학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그 파괴적 결과까지 인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적 근대화'의 실천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요구를 모아 정치적으로 ㉣ 표출(表出)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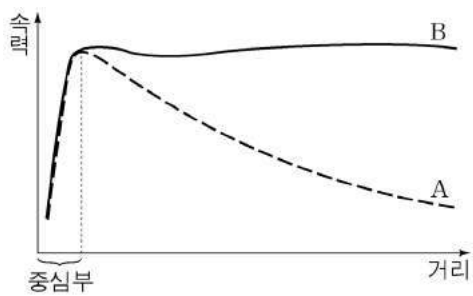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현대인의 삶과 사회 전체가, 형체는 가변적이고 흐르는 방향은 유동적인 액체와 같아졌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액체 시대라는 개념을 통해 핵 확산이나 환경 재앙 등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의 항시적 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벡과 달랐다. 바우만은 우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수의 특권 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빈부 격차에 따라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등 잉여 인간으로 ㉥ 전락(轉落)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가 더 치명적으로 본 것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된 현대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내면화되면 사람들은 극복 의지도 잃고 공포로부터 도피하거나 소극적 자기 방어 행동에 ㉦ 몰두(沒頭)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우만은 일상생활에서의 정치적 요구를 담은 실천 행위도 개체화의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대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
-> [] [] 가
&)
1
-> [] -> 1. 2.]
2
2
? . [= 가]
[[=]]
. 1 [] [] []
] 2 [] []
= = 가
1) 가 -> 가
2) 가
3) 가 = 가 + -> 가 가 -> X
4) 가
-> 가 = 가 + 가 가
2
-> [] = 가] -> (=)
3 ~ 4
3 3~4 [가
-> 3] [] & , 4] 3 가
[<->] []
가
: [] . (<->)
1) 가 : [] + 가 [] []
-> 가 [] + 가 [] []
2) & -> O ->
X -> (= ->) X(=) -> =
-> 가 .가 [->] [->] (X)
-> 가 -> 가 가 -> [] []]
[가 , [] [] 가
. 4 1 3 -> 가] .:)
3~4
[(=)]

1 - ->
2 - [] = 가]
3 ~ 4 - [] & (=)]
-> 3 - : / 가 / O -> O
-> 4 - : 가 / / X -> X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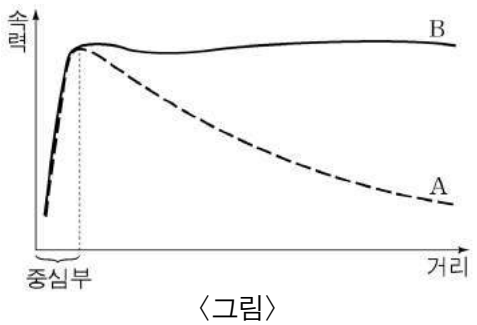
- ① 은하단 내부에 퍼져 있는 가스와 거의 충돌하지 않는다.
- ②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보다 더 큰 질량을 차지한다.
- ③ 보통의 물질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다.
- ④ 은하 안에 퍼져 있으면서 그 은하 안의 별을 은하 중심 쪽으로 당긴다.
- ⑤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을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더 크게 만든다.

26. <그림>의 곡선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선 은하를 관측한 결과를 근거로 그린 곡선이다.
- ② '실종된 질량'의 존재를 확인해 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③ 중심부 밖의 경우, 별의 공전 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이 A에서보다 더 큼을 보여 준다.
- ④ 중심부의 경우, 거리와 별의 공전 속력이 비례하는 것을 통해 암흑 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중심부 밖의 경우, 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일수록 그 별을 은하 중심으로 당기는 암흑 물질이 더 많음을 보여 준다.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①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있지만, 암흑 물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1933년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의 질량을 추정하다가 암흑 물질의 개념을 생각해 내었다. 그는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은하단 내부에 '실종된 질량'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970년대에 루빈은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나선 은하에서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들은 중심부에 집중되어 공전한다. 중력 법칙을 써서 나선 은하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을 계산하면, 중심부에서는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심부 밖에서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심 쪽으로 별을 당기는 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림>의 곡선 A에서처럼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속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지만 실제 관측 결과, 나선 은하 중심부 밖에서 공전하는 별의 속력은 <그림>의 곡선 B에서처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하다. 이것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은하 중심 쪽으로 그 별을 당기는 물질이 그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루빈은 별의 공전 궤도 안쪽에 퍼져 있는 추가적인 중력의 원천, 곧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하였다. 그 후 암흑 물질의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후 2006년에 암흑 물질의 중요한 성질이 탄환 은하단의 관측을 바탕으로 밝혀졌다. 탄환 은하단은 두 개의 은하단이 충돌하여 형성되었다.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서로 부딪쳐 탄환 은하단의 중앙에 모인다. 반면 각각의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은하단이 충돌할 때 은하들끼리는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 이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암흑 물질도 두 은하단의 은하들과 함께 엇갈려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써 암흑 물질은 가스나 별과 같은 보통의 물질뿐 아니라 다른 암흑 물질과도 거의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1 -> 1933 가

1) [] (=) X

2 -> 1970 가

2) [] (=A) <-> [] (=B)

3 -> 2006 가

3) [] (=A) (=B)

85% : 가

1) 가 O

2) -> X

3) 2) -> X

-> X

3 -> 2006

- 1 -> 1933 가
- 2 - 1970
- 3 - 2006

주간 과제를물

비문학

- ① 평가원 기출
- ② 지문 분석 연습장
- ③ 자체 제작 해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에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 ③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 ④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
- ⑤ 새가 단안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 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 ①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안 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 ④ (나)는 결 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⑤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

단락별 정리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류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17.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학’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공자가 건립한 교육 기관이다.
- ② 주희는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하여 잘못된 행위를 한다고 보았다.
- ③ 주희와 정약용의 경전 해석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정약용의 『대학』 해석에는 마음 수양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관심이 반영되었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은 일치한다.
- ② 주희와 정약용 모두 ㉠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를 강조하였다.
- ③ 주희는 ㉠을 ‘효’, ‘제’, ‘자’라는 구체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에는 백성 또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주희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 ⑤ 정약용은 ㉡가 고본 『대학』의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

19. 윗글과 <보기>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 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
- 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20. 문맥상 ㉧~㉥을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인도(引導)해야
- ② ㉡: 지시(指示)해야
- ③ ㉢: 개편(改編)했다
- ④ ㉣: 도착(到着)할
- ⑤ ㉤: 쇄신(刷新)하고자

단락별 정리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 유학자들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글자와 문장의 정확성을 따지는 훈고(訓詁)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희와 정약용은 ㉠ '명명덕'과 '친민'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 주희는 '명덕(明德)'을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다.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서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명명덕'은 바로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약용은 명덕을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으로 해석한다. 명덕은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이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효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어버이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랐다.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 이를 것인가에 관심을 둔 반면,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 바로잡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times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폈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폈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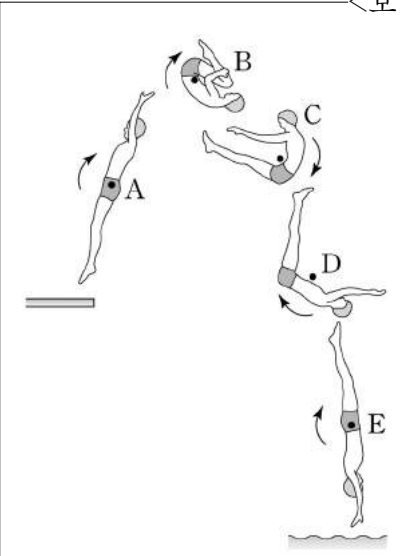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단락별 정리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 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times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폈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폈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분체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분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20.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 | ㉠ ‘육체적 사건’ | ㉡ ‘정신적 사건’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단락별 정리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분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호 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분제가 생긴다.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분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분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북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바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 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북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북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 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북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 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북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북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광대용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The diagram shows a pendulum bob swinging in a vertical plane. The initial swing plane is labeled '진자의 진동면' (pendulum's swing plane). As time progresses, the swing plane rotates clockwise, labeled '진동면의 회전 방향' (direction of rotation of the swing plane). Points A, B, C, and D are marked on the ground to show the path of the bob's shadow. A is the starting point, B is where it returns, C is where it has shifted clockwise, and D is where it has shifted counter-clockwise.

-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단락별 정리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북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바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도 외에 약 1,600 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 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북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북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 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북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 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① 알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②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역사는 수사학의 범위 안에서 점차 발전되어 왔다.
- ②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다.
- ③ 역사의 어원이 되는 ‘histor’라는 단어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지칭할 때 쓰였다.
- ④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라고 인식한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기대했기 때문이다.
- ⑤ 『역사』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찾았다.

2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가) 필라르코스는 자신이 쓴 역사서에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일으키고 주의를 끌 만한 장면들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역사가는 그런 과장된 묘사로 독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면 안 된다. 또 비극 작가들처럼 등장인물들이 했을 법한 말을 상상하여 서술해서도 안 된다.
- 폴리비오스, 『세계사』 -
- (나) 역사가는 무엇보다 거울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 거울은 맑고 밝게 빛나며 왜곡이나 채색함이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역사가가 말하는 것, 즉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인 까닭이다.
- 루키아노스, 『역사에 대하여』 -
- (다) 과거사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책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 ① (가)의 ‘필라르코스’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보아야겠군.
- ② (나)는 역사가의 덕목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거울’로 표상하고 있군.
- ③ (다)의 투키디데스는 순환 사관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있군.
- ④ (가), (나)는 모두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군.
- ⑤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보다 설득력을 중시하고 있군.

21. ㉠의 입장에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전에만 의거해 서술했으므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
- ③ 트로이 전쟁의 중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④ 신화적 세계관에 따른 서술로 인해 과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 어렵다.
- ⑤ 과거의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은 찾을 수 없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와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멍들다 ② 빛내다 ③ 힘쓰다
-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단락별 정리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을 쓰면서 『역사(Historiai)』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 이처럼 어원상 '역사'는 본래 '목격자의 증언'을 뜻했지만,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 '진실의 탐구' 혹은 '탐구한 결과의 이야기'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헤로도토스 이전에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전수되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주로 과거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은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 이 서사시에서는 전쟁을 통해 신들, 특히 제우스 신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헤로도토스는 바로 이런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 새로운 이야기 양식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즉, 헤로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직접 확인·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사람들은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後世人)에게 교훈을 주는 데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는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순환 사관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다.

물론 모든 역사가들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역사 서술의 우선적 원칙으로 ㉠ 앞세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는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런 경향은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이들은 이야기를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역사를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그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더욱이 15세기 이후부터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고, ㉡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과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서술 태도가 역사의 척도로 다시금 중시되었다.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는 파스칼(Pa, 1MPa=10⁶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2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 ②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 ③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 ④ 증산 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물기둥에 장력이 발생한다.
- ⑤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관부 내의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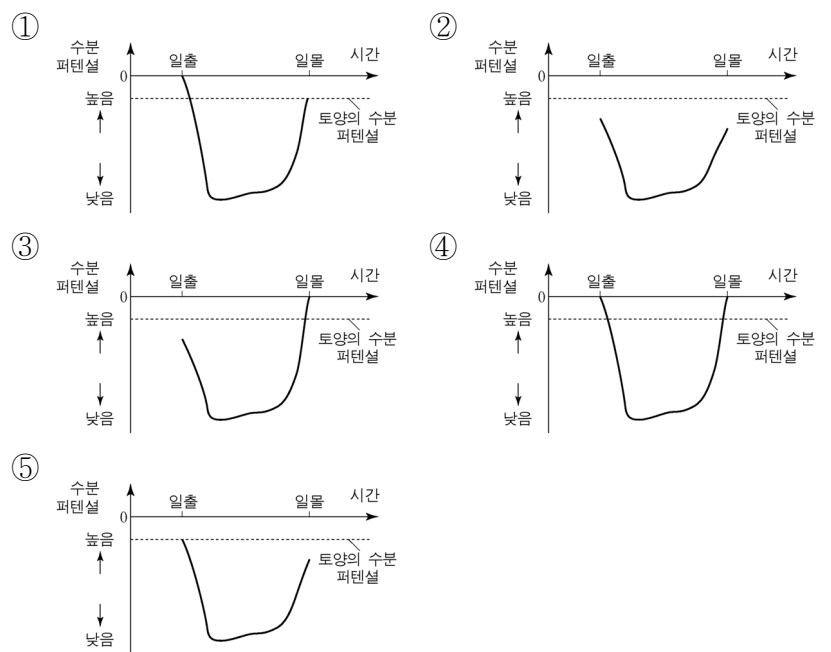
24.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한다.
-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한다.
- ㉢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
-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퍼텐셜이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진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잎’의 수분 퍼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단락별 정리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는 파스칼(Pa, 1MPa=10⁶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룰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룰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 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41. 위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 고모님 뵈는 게 몇 년 만인가? ㉢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어, 저기 ㉣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려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3. 밑줄 친 단어들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락별 정리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룰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룰 경우에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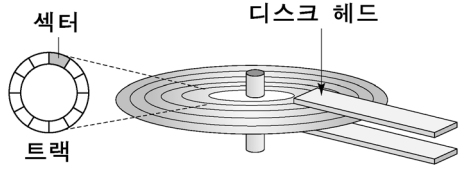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 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전체 구조 잡기

물랐던 어휘 CHECK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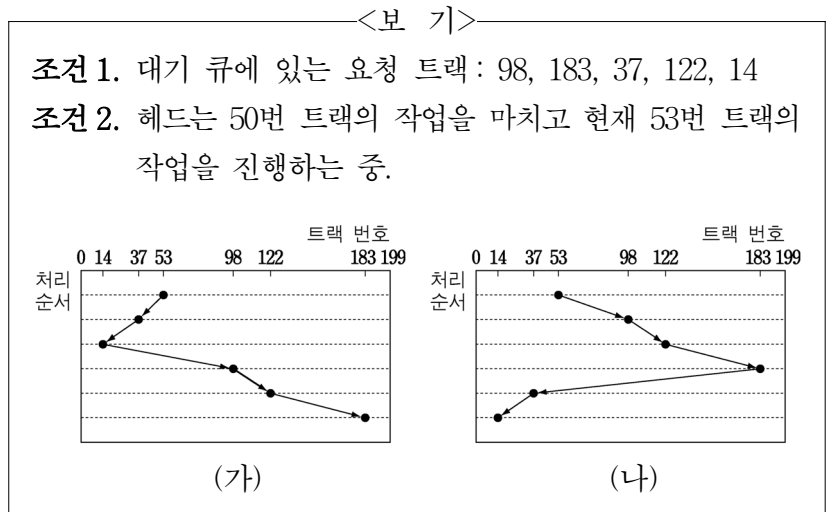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 ②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 ③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 ④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45. <보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에서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스케줄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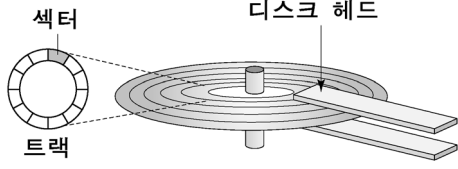


- | | (가) | (나) |
|---|------|------|
| ① | FCFS | SSTF |
| ② | SSTF | SCAN |
| ③ | SSTF | LOOK |
| ④ | SCAN | LOOK |
| ⑤ | LOOK | SCAN |

46.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3점]

- ①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SSTF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작다.
-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 ⑤ 요청된 트랙 번호들에 끝 트랙이 포함되면,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①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전체 구조 잡기

몰랐던 어휘 CHECK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④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48. <보기>의 상황에 ㉠, ㉡을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①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②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③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④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⑤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②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③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을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④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⑤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②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 ③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④ 형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⑤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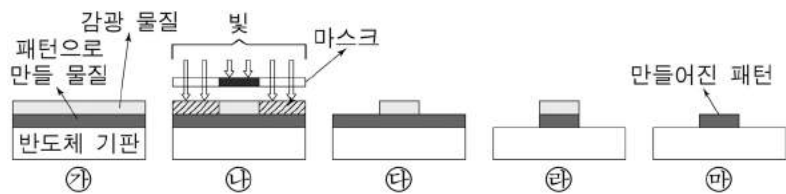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CHECK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는 반도체 소자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줄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 원판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판화를 종이 위에 찍어 낼 수 있듯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제작한 후,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 판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와 같이 패턴으로 만들 물질이 코팅된 반도체 기판 위에 감광 물질을 고르게 바른다. 감광 물질이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말한다. 두 번째로, ㉡와 같이 마스크 위에서 빛을 쬐어 준다. 마스크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 빛은 마스크의 패턴을 제외한 부분만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세 번째로, ㉢에서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하면 ㉣와 같이 된다.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을 양성 감광 물질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쓰는 감광 물질을 음성 감광 물질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에 남아 있는 감광 물질을 보호층으로 활용하여 감광 물질이 덮여 있지 않은 부분만을 제거하면 ㉥와 같은 모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와 같이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한편,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하게 마스크에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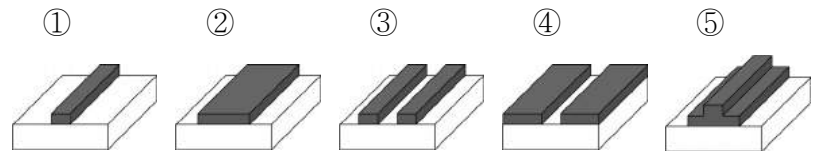
17.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반도체 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 ② 포토리소그래피에 쓰이는 마스크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 ③ 마스크에 패턴을 새겨 넣는 레이저는 판화의 조각칼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 ④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보다 작다.
- ⑤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

18. <보기>의 모든 공정을 수행했을 때,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될 패턴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양성 감광 물질을 패턴으로 만들 물질 위에 바르고 마스크 A를 이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수행하여 패턴을 얻은 후, 그 위에 **음성 감광 물질**을 바르고 마스크 B를 이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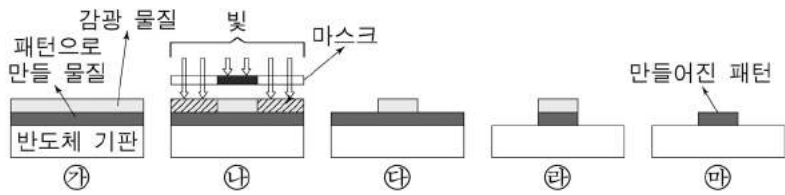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 ②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 ③ 빛을 사용하지 않고 패턴을 복사하는 방법의 발명을 위해
- ④ 한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기 위해
- ⑤ 반도체 소자 생산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단계를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는 반도체 소자가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소자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패턴의 크기를 줄여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포토리소그래피이다.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는 판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 원판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판화를 종이 위에 찍어 낼 수 있듯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제작한 후,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 판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만든다.

포토리소그래피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가)와 같이 패턴으로 만들 물질이 코팅된 반도체 기판 위에 감광 물질을 고르게 바른다. 감광 물질이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을 말한다. 두 번째로, (나)와 같이 마스크 위에서 빛을 쬐어 준다. 마스크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데, 빛은 마스크의 패턴을 제외한 부분만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며, 이때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세 번째로, (다)에서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하면 (라)와 같이 된다. 이렇게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을 양성 감광 물질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쓰는 감광 물질을 음성 감광 물질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라)에 남아 있는 감광 물질을 보호층으로 활용하여 감광 물질이 덮여 있지 않은 부분만을 제거하면 (마)와 같은 모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마)와 같이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

한편, 반도체 기판 위에 새길 수 있는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①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고 미세하게 마스크에 패턴을 만드는 기술의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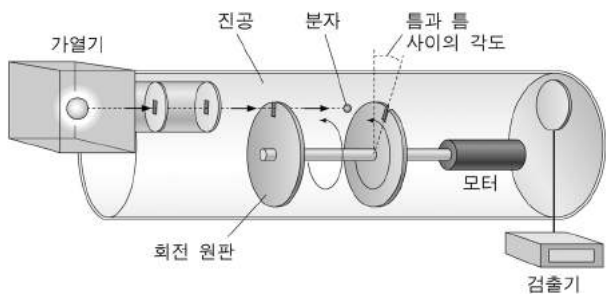
CHECK

상온에서 대기압 상태에 있는 1리터의 공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질소, 산소 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산소 분자 하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며, 충돌을 할 때마다 이 분자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어떤 구간의 속력을 가진 분자 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분자들의 속력 분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태에 있는 산소처럼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 우리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 경우에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게 된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는 맥스웰의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로축을 속력, 세로축을 분자 수 비율로 할 때 종(鐘)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속력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꼭짓점 부근에 해당하는 속력을 가진 분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은 온도와 기체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온도만 올리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빠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는데, 이는 전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자 수와 온도는 같은데 분자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느려져서 분포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동하며, 분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그림은 맥스웰 속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① 밀러와 쿠슈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기와 검출기 사이에 두 개의 회전 원판이 놓여 있다. 각각의 원판에는 가는 틈이 있고 두 원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원판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가열기에서 나와 첫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을 지나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특정한 속력 구간보다 더 빠른 분자들은 두 번째 틈이 꼭대기에 오기 전에 원판과 부딪치며, 느린 분자들은 지나간 후에 부딪친다.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 이 각도를 고정하고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되는 다른 속력을 가진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온도에서 특정한 기체의 속력 분포를 알아보았더니, 그 결과는 맥스웰의 이론에 부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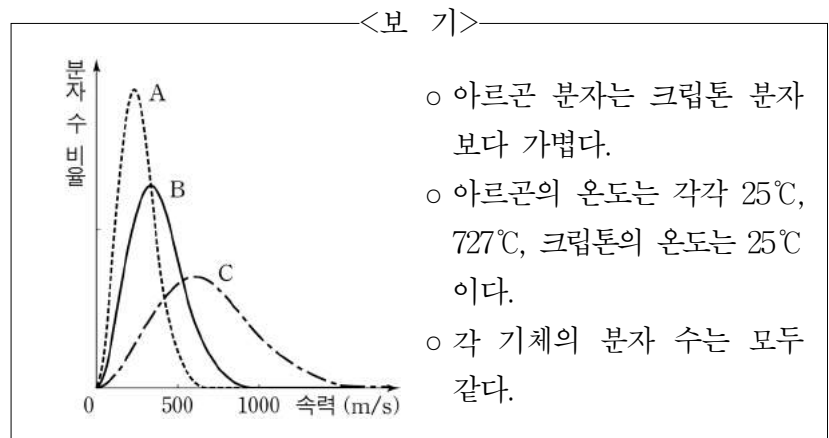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분자들의 충돌은 개별 분자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② 대기 중 산소 분자 하나의 운동 궤적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
- ③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멀다면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
- ④ 분자의 충돌에 의해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 ⑤ 대기 중에서 개별 기체 분자의 속력은 다양한 값을 가진다.

45. <보기>의 A, B, C는 맥스웰 속력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기체와 그래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아르곤(25°C)	아르곤(727°C)	크립톤(25°C)
①	A	B	C
②	A	C	B
③	B	C	A
④	B	A	C
⑤	C	B	A

46. ①과 연관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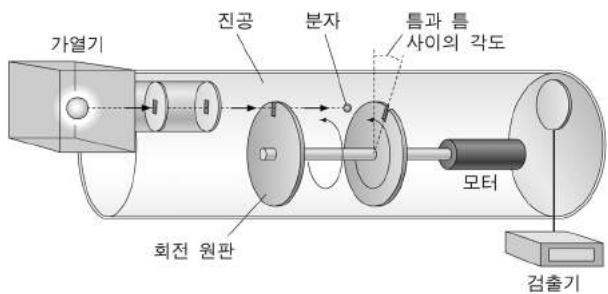
- ① 맥스웰 속력 분포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② 첫 번째 회전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검출기에 도달한다.
- ③ 첫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은 다양한 값의 속력을 가진다.
- ④ 원판의 회전 속력은 같고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빠른 분자들이 검출된다.
-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더 느린 분자들이 두 번째 회전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상온에서 대기압 상태에 있는 1리터의 공기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질소, 산소 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있다. 이들 중 어떤 산소 분자 하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며, 충돌을 할 때마다 이 분자의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어떤 구간의 속력을 가진 분자 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하는 분자들의 속력 분포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상태에 있는 산소처럼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 우리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고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 경우에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게 된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는 맥스웰의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가로축을 속력, 세로축을 분자 수 비율로 할 때 종(鐘)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진다. 이 속력 분포가 의미하는 것은 기체 분자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꼭짓점 부근에 해당하는 속력을 가진 분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기체 분자들의 속력은 온도와 기체 분자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온도만 올리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빠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는데, 이는 전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같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체 분자 수와 온도는 같은데 분자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느려져서 분포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동하며, 분자 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뽕족해지고 좁아진다.

그림은 맥스웰 속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① 밀러와 쿠슈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기와 검출기 사이에 두 개의 회전 원판이 놓여 있다. 각각의 원판에는 가는 틈이 있고 두 원판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두 원판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가열기에서 나와 첫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으로 입사한 기체 분자들 중 조건을 만족하는 분자들만 두 번째 회전 원판의 가는 틈을 지나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하지만,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다. 특정한 속력 구간보다 더 빠른 분자들은 두 번째 틈이 꼭대기에 오기 전에 원판과 부딪치며, 느린 분자들은 지나간 후에 부딪친다.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 이 각도를 고정하고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을 바꾸면, 새로운 조건에 대응되는 다른 속력을 가진 분자들을 검출할 수 있다.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어떤 온도에서 특정한 기체의 속력 분포를 알아보았더니, 그 결과는 맥스웰의 이론에 부합하였다.

CHECK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28~29번]

28번 : ④ [목수][구분]

->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는 것은 단안 단서 중 하나죠. 이 글은 아래와 같은 흐름이었죠.

[1문단 - 양안 단서 & 단안 단서라는 게 있음]

[2문단 - 단안 단서 중에는 ①상대적 크기가 있음 ②직선 원근이 있음 ③결 기울기도 있음]

[3문단 - ④운동 시차도 단안 단서가 될 수 있음]

[4문단 - 동물도 단안 단서를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를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해요. 그레주셨다면 해당 선지는 [단안 단서를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 양안 단서를 이용해야 한다]이라는 말과 같은 모순이 있는 선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①[예시][인과]

-> 4문단에 제시된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어서 -> 양쪽 눈의 시야가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어 ->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동물 친구들에 해당하죠.

②[목수]

-> [단안 단서 -> 이전의 경험으로 부터 추론 -> 세계를 3차원 인식 가능]이라고 1문단에 제시되었죠. 적절하네요.

③[정의]

-> 1문단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평가원이 괜히 [시차]에 주석을 달아준 게 아니겠죠. 항상 [정의]가 있는 문장은 주목해주셔야 해요. 정의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된다면 뒤에 따라 나오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통해서 꼭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④[정의][예시][비교]

-> 두 경우 모두 운동시차를 단안 단서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4문단 [새가 머리를 좌우로 움직임 ->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3문단-운동 시차에서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간의 상대적 거리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이므로 적절하네요. 각각의 정의를 파악하고, 어렵다면 추가적으로 주어진 예시를 통해 두 개념을 파악하고 비교해주셔야 하는 선지였네요.

29번 : ①[구분][정의][예시]

-> <보기>문제는 항상 <보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지문에서의 어떤 내용인지를 단서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즉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단안 단서 -> 망막에 맺히는 것은 2차원 -> But 그 상들 사이의 깊이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제시된 단안 단서 4가지)를 통해 -> 입체 지각 가능]의 과정, 목적과 수단을 잘 파악하면서 읽는 게 핵심이었죠.

(가) : 다람쥐(=관찰자인데 움직이면서 관찰함), 여우(=관찰 대상인데 정지 상태)이고 다람쥐는 그러한 [운동시차]를 통해서 여우와의 상대적 거리를 파악하고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직각 방향으로 걸어감(=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어감 것)

(나) : 축구공 작아질 때는 개가 안 도망감 -> 근데 가까워질 때는 도망감->가까워질 때 도망갔다는 것은 가까워질 때 공이 진짜로 날라온다고 생각하고 '놀라서 도망간 것'임. 따라서 [가까움<->멈]에 따른 [상대적 거리]를 단서로 이용한 것.

-> 따라서 ①이 적절하네요.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이라는 말은 4가지 중에 해당하는 단안 단서를 이용했다는 말), 운동시차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니까요. 각각의 단서들의 [정의]와 [예시]를 통해서 <보기>에 사례와 [비교]해 적용시켜주는 것이 핵심이죠.

②[예시][인과]

-> 눈이 좌우 측면에 있으면 눈이 두개여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양안 단서를 이용하지 못 한다고 했어요.

③[인과]

-> [멀리 - 정지] <-> [가까이 - 빠르게]라고 했죠.

④[인과][조건]

-> 결 기울기가 얻어지는 경우는 2문단의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에 의해]에 해당하는 경우죠. 근데 (나)에서 공은 한 개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아요. [상대적 크기]를 이용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⑤[인과][구분][목수]

-> 선지에서 [한 쪽 눈을 가렸다면]이라는 조건은 쉽게 말하면, [단안 단서를 활용하게 했다면]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나)에 단서에 해당하는 [상대적 크기]는 단안 단서라 이용할 수 있죠.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파악했으면, 무난하게 소거할 수 있는 선지에 해당하겠네요. 당연히 개가 단안 단서로 활용할 것이니까 놀랐겠죠.)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2014학년도 9월 모의수능 B형 17~20번]

17번 : ④ [구분][비교]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공통점이죠. 3문단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4문단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에서 확인 가능해요. 둘 다 그러한 점은 공통점이었지만, 그 이상의 실현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전형적인 [구분]&[비교]로 이루어진 지문이며 문제도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네요.

①[정의]

->공자가 건립했다는 것은 안 나오죠. [대학]이라는 책에서의 명명덕과 친민이 공자의 말로 여겨진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대학은 고대 중국에서 교육 기관을 가르치는 말일 뿐이구요. 절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맙시다.

②[인과][목수][정의]

->주희는 명덕은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이라고 보았고, 기질이 그러한 명덕을 가려서 발휘되지 못하게 하므로 그러한 기질을 교정해야 하는 공부가 필요하고 그것이 명명덕이었죠.

[명명덕으로 공부 -> 기질 교정 -> 기질에 가려졌던 명덕이 드러남 -> 개꿀]이었죠.

③[구분][인과]

->[명명덕과 친민을 공자의 말로 여기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왜? -> 경문 해석의 차이는 1.훈고가 다르기 때문 / 2.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르기 때문 -> 그 예시가 2~3문단 -> 명덕&친민이라는 글자에 대한 다른 해석이 드러남]

⑤[구분]

->정약용은 당대의 학자들이 마음 수양에 치우쳐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어요.

18번 : ④[구분][비교]

->①과 ②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는 문제에 해당하네요. 주희와 정약용의 입장을 비교해서 정리해봅시다.

-주희

명덕 :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근데 기질이 이러한 명덕을 가려서 발휘가x되면 잘 못된 행동을 함

①(=명명덕) : 따라서 도덕 실천을 위해 명덕이 발휘되도록 기질을 교정하는 공부가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②(=신민) : 주희가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친민'의 단어를 바꾼 것으로, 백성들에게도 ①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친민보다 신민이 이러한 의미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

-정약용

명덕 : 효, 제, 자의 덕목으로 해석->주희와는 다르게 마음이 지닌 능력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으로 봄

①(=명명덕) : 따라서 명명덕은 그러한 덕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

②(=신민) : 친민은 백성들이 ①과 같은 명명덕을 행하게 하는 것. 즉 구체적인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해석함. 물론 여기서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음에는 동의하나,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된다고 주장. 따라서 주희가 친민을 수정한 글자인 신민은 옳지 않다고 생각.

->이러한 둘 사이의 입장 차이를 명확하게 잡고 문제를 풀면 간단하죠. ②는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명덕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명덕의 발휘는 도덕적인 행위의 원천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네요.

①[구분][비교]

->위의 해설과 같이 ②에 대한 해석을 일치하지 않아요.

②[구분][비교][목수]

->주희는 [백성들이 ①을 하도록 이끌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①], 정약용은 [백성들이 ②를 하도록 이끌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 =친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③[구분][비교]

->정약용의 주장에 해당하죠.

⑤[구분][비교]

->친민이라는 본래 글자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약용이 형은 ㅇㅇ.

19번 : ⑤[비교][구분]

->정약용, 주희, 왕양명의 입장을 각각 [구분->비교]하는 문제에 해당해요. 주희는 백성들을 가르쳐 새롭게 만든다는 취지를 친민보단 신민이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 [친민 -> 신민]으로 수정했죠. 반면 <보기>에서와 같이, 왕양명은 [신민 -> 친민]으로 다시 수정했다. 왜냐하면 [백성이 가르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쳐야 할 대상인(=주희와 공통점)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주희와의 차이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주희의 입장)보다는 친(=왕양명의 입장)이 적합하다고 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왕양명은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절해요.

①[비교]구분

-><보기>마지막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명덕에 대한 둘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②[비교]구분

->왕양명은 주희와 같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이라고 해석했어요.

③[비교]구분

->친민에 대한 해석은 주희, 왕양명, 정약용이 모두 다르죠.

④[비교]구분

->왕양명과 정약용 모두 신민 보다는 본래의 친민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 친민의 해석에 있어서 둘 사이의 해석차이가 있을 뿐이었죠.

20번 : ①

①인도하다 : 이끌어 가르치다.

따라서 의미가 같으므로 ①이 적절하다. 나머지는 틀렸으면 제발 사전 좀 찾아봅시다. 제자님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29번]

28번 : ④[인과]

->해당 지문은 전형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글이었죠.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A->B->C]와 같은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여, 정리해가면서 글을 읽는 게 좋아요. 이러한 유형은 요즘 비문학에서도 고난도 <보기>문제로도 자주 빈출돼요. (ex)2018학년도 독서 23번 경제지문) 이 글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개념들을 정리해봅시다.

1) 회전 운동하는 물체 ->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X->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 유지=각 운동량 보존 법칙

2) 각 운동량 = (각속도)X(회전관성) = mvr

3) [회전 관성이 클수록->각속도 변화 어려움=회전 속도 변화 어려움]

[회전 관성이 작을수록->각속도 변화 쉬움=회전 속도 변화 쉬움]

Tip : 각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물체가 회전하는 각이므로 각속도와 회전속도는 비례관계로 볼 수 있다.

4)[같은 각운동량을 갖고 있는 회전하는 물체는 질량요소 회전축에서 멀수록->회전 관성 큼]

[같은 각운동량을 갖고 있는 회전하는 물체는 질량요소 회전축에서 가까울수록->회전 관성 작음]

->1~4번을 연관지어주면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질량요소 회전축에서 멀수록->회전 관성 큼(=각속도 변화 어려움)->그만큼 각속도는 작아짐->각 운동량의 값 일정하게 유지]

[질량요소 회전축에서 가까울수록->회전 관성 작음(=각속도 변화 쉬움)->그만큼 각속도는 커짐->각 운동량의 값 일정하게 유지]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는 28~29번 모두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조건들에 해당했죠.

④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 회전 관성]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다. 지문에 나온 [두 팽이]의 [예시]를 그대로 적용시켜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속이 빈 쇠공 =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상대적으로 먼 경우], [속이 찬 플라스틱 공 =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경우]이므로 [회전축에서 멀 -> 회전 관성이 큼]으로 적절한 선지예요.

①[인과]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것은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3)의 조건에서와 같이 회전 관성이 작을수록 회전시키기가 쉬웠죠.

②[정의]

->회전하는 팽이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이 없다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회전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③[인과]

->지면과의 마찰은 돌림힘에 해당이 될 텐데 [돌림힘 -> 회전 관성 작아짐]의 [인과]관계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각운동량을 줄어든게 하는 1문단 마지막에서 [마찰 또는 공기저항 작용 = 돌림힘에 해당 -> 각운동량이 변화, 이 경우에는 감소]의 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

⑤[정의]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을 의미하죠 따라서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은 같은 단위 시간 당 같은 각을 회전한다. 따라서 [작다 -> 같다]로 바꾸어야 적절한 선지에 해당하겠네요. 해당 선지에서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더 가까운 점 -> 회전 관성이 작음 -> 가까운 점이 각속도가 더 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두 점은 애초에 각운동량의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이죠. 각운동량은 mvr 로 표시되는데, r 의 값이 멀리 있는 점이 더 크다. 따라서 각운동량은 멀리 있는 점이 더 크죠. 즉 각속도는 같지만, [회전축으로 멀리 있음 -> 회전 관성이 더 큼 -> 그래서 각운동량이 멀리 있는 점이 더 큼]의 [인과]이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여기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29번 : ⑤[정의][인과][비교]

->우선 28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용해 해설을 할게요. 항상 <보기>에서는 뭘 묻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보기>에서의 핵심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X -> ? -> 아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하죠. [각운동량 = (각속도) X (회전 관성)]인데 각운동량이 일정하니까 각속도와 회전관성은 현재 반비례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즉 하나의 값이 커지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작아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잡아 놓고 들어가면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 -> <보기>보다 회전축으로 거리가 가까운 상태로 회전운동을 지속함 -> 그 말은 상대적으로 <보기>보다 선지의 경우가 회전 관성이 작은 상태로 회전 운동을 한다는 말 ->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각속도는 커지게 되고 -> 각속도의 정의에 따라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의 크기는 증가함 -> 더 많이 회전하겠네]

의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선지에 해당한다.

①[정의][조건]

->[더 크겠군 -> 같다]로 바꾸어줘야 돼요. [외부 돌림힘 작용X -> 각운동량이 보존]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②[정의][인과]

->[질량 요소들의 합=전체 질량]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한 선수가 회전하는 경우니까 당연히 질량 요소는 A~E까지 변화가 없겠죠.

③[인과][정의]

->[작은 -> 큰]으로 바꿔줘야 돼요. [B가 가장 회전축에서 가까움 -> 회전 관성 A~E중 가장 작음 -> 근데 각운동량이 보존되네 -> 그러면 그만큼 각속도가 커져야 되네]이므로 적절한 선지예요. [가장 가까움 -> 가장 회전 관성 작음 -> 가장 각속도 큼]이겠죠.

④[인과]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즉 회전축으로부터 질량 요소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 그러면 회전 관성은 커진다]이므로 적절하지 않네요. [작아지겠군 -> 커지겠군]으로 바꿔줘야 적절해지겠죠.

[2014학년도 수능 B형 19~21번]

19번 : ⑤[정의][구분][비교]

->두 가지 상식이 무엇인지를 1문단에서 잡고 글을 읽어야 해요.

1.정신적 사건 & 물질적 사건이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 = 이질성

2.정신적 사건 & 물질적 사건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 = 관련성

->[근데 이질성 & 관련성의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음 -> 그래서 이것을 관련시키려고 노력한 게 심신이원론인데 -> 심신 이원론은 1,2상식을 모두 성립함을 보이려고 했음. 그 예로 상호작용론, 평행론, 부수현상론이 제시됐는데 -> 이 이론들 모두 한계에 부딪힘 -> 애초에 1과2를 모두 성립한다고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임 -> 그래서 등장한 게 1과 같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고, 애초에 둘은 동일하다고 보는 심신이원론인 동일론 -> 동일론은 1의 상식을 부정하고 2의 상식만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함. 이게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핵심 주장들의 [구분]들이 되겠네요. 따라서 동일론은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1번 상식이 틀렸으며, 2번만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①[구분][비교]

->○○○ 맞는 말이에요. 위 해설 참조하시면 됩니다. 심신이원론(에 속하는 부수현상론, 상호작용론, 평행론 모두)는 1의 상식, 즉 두 사건이 구분되면서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함.

②[구분][비교]

->상호작용론은 [육체->정신 / 정신->육체]의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한다고 주장했죠.

③[구분][비교]

->평행론은 [육체->육체], [정신->정신]만 성립하며, 두 사건은 별개로 존재하지만 항상 평행하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했죠.

④[구분][비교]

->부수현상론은 [육체->정신], [육체->육체]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죠. [정신->육체 / 정신->정신]은 안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적절하네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20번 : ③[구분][비교]

->평행론은 [물->물/정->정]이라고 주장, 동일론[애초에 정신적 사건은X며 모두 물질적 사건임->(물->물)만 성립]한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두 주장 물질적 사건은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데 동의할 거예요.

①[구분][비교]

->평행론X, 동일론O.

②[구분][비교]

->평행론O, 동일론X.

④[구분][비교]

->둘 다 X.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네요.

⑤[구분][비교]

->둘 다 X. 부수현상론에 대한 설명이네요.

21번 : ②

->역시 단서들을 정리해보면

[a(=인) -> b(=과&인) -> 개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과)]

[a(=인) -> c(=과) -> X]

따라서 부수 현상론에서는 [원인&결과 모두 가능한 것 = 육체적&물질적 사건/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 = 정신적 사건]이므로 정답은 ②이죠.

[㉠=a, b / ㉡=c]이예요.

[2014학년도 수능 B형 26~27번]

26번 : ③[인과]

->남위 50도는 남위 40도보다 고위도죠. 지문에서 [지구는 구 -> 고위도로 갈수록 둘레가 짧아짐 -> 근데 자전주기는 동일함 -> 즉 같은 주기(= 시간)동안 적도는 더 많은 둘레를 돌아야하니까 자전 속력이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은 더 적은 둘레를 돌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자전 속력이 적도에 비해 느려지는 거임 -> 이러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됨 = 이게 전향력 스그]라고 했으니까 ③은 [움직이는 속력이 더 느리다]로 바뀌줘야 적절해지겠죠.

①[비교][인과]

->위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자전 주기는 어디나 동일해요. 그래서 자전 속력의 차이가 생기고 그 때문에 전향력이 생기는 거죠.

②[인과][조건]

->지문에서 전향력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2개가 제시되었어요. 1~4문단에서 지구장차 설명한 위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5문단에서 설명한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이죠. [속력 빠를수록 전향력 커짐 <-> 정지한 물체는 전향력 0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어요.

④[인과]

->남위30에서 정남쪽으로 쓴 거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쓴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구의 둘레차이&자전주기 동일 -> 자전 속력의 차이 -> 이동하는 물체 편향 -> 전향력 생김 -> 근데 지구는 북극을 내려다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했음 -> 그래서 전향력이 동쪽으로 작용하는 거임]이므로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지겠죠.

⑤[조건][비교]

->4문단 마지막에서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라는 조건이 제시됐죠. 항상 [모든, ~마찬가지로, ~와 달리, 유일하게]등과 같은 강조 표현들은 주목해야 해요. 오답 선지라도 함정을 자주 구성하는 부분이니깐요.

27번 : ②[인과][비교]

-><보기>에서 뽑아낼 것은 [추를 진동시켰는데' = 즉 운동하는 물체라는 말임&그리고 회전한데 -> 그러면 전향력이 생김 거네]랑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 -> 여기서 시계 방향&반시계 방향에 집착하지 말고 그림을 보면 -> 그러면 진자가 '운동 방향'의 어느 쪽으로 회전하는지 파악 가능함 이게 중요함 ->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돌고 있음 -> 그 말은 즉 북반구겠네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 물론 파리가 남반구에 있을 리는 없는데 여러분이 하도 강조하는 배경지식을 진짜로 정말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이렇다는 거]죠

즉 핵심은 [1.전향력이 작용함 / 2.근데 북반구라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함] 이게 끝이예요.

선지로 가서 [파리보다 고위도로 간다면 ->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속력은 빨라진다고 함 -> 그 말은 편향 현상이 커진다는 말이고 -> 전향력도 커짐 -> 휘어지는 정도가 증가함 -> 진동면이 더 빠르게 회전]이니까 적절하지 않죠. 반비례로 오답 선지 구성한 거에 해당하네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①[비교][조건]

->착각하지 말게 남반구&북반구 모두 동쪽으로 편향력이 작용해요. 다만 그 동쪽이 북반구에서는 [물체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것이고 남반구에서는 [물체의 진행 방향의 왼쪽]이 되는 거죠. 이거 많이들 혼동해요. 어쨌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엔 진동면은 진자의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돌 거고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 문단 마지막에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라고 한 거구요. 그 첫 문단에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에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에 집착 하지 마세요. 그건 지구의 자전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을 말하는 단서 일뿐 <보기>사례에서 시계 방향&반대 방향은 서로 [대조]해서 찾아내는 것일 뿐이에요.

③[인과][조건]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가 동일]하다는 것은 곧 [전향력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지 절대로 [자전 주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푸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개념이니깐요. 양쪽은 모두 양 극지방으로 가장 고위도에 해당하고, 지문에서 4문단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된다]이므로 둘이 회전 주기가 동일한 거죠.

④[조건][인과][정의]

->적도? -> 편향 없음 -> 전향력도 당연히 없겠죠 -> 그럼 회전 안함 ㅇㅋ.

⑤[비교][인과]

->[남위60]를 통해서는의 출제 의도는 반대의 경우에 적용시켜보라는 거죠. [남반구에서 바뀌는 조건]은 지문에서 하나 주어줬죠. -> 운동 방향의 [오른쪽에서 -> 왼쪽으로]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네요.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동쪽 -> 왼쪽]으로 편향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쪽 =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 -> 정면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자전한다고 -> 이 방향은 같은 방향인데 다만 남반&북반부에서 이동 방향이 위&아래로 거꾸로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가 바뀐다는 것이죠 ㅇㅋ? ㅇㅋ]

[2013학년도 6월 모의수능 19~22번]

19번 : ①[인과/선후]

->[헬레니즘&로마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역사 서술 -> 중세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지속되었고, 이들은 수사학의 테두리 안에 역사를 집어넣은 셈 -> 하지만 이 시기(=중세시대)에도 역사의 본령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는 역사가들 여전히 존재 -> 더욱이 15세기 이후에는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됨]의 [인과/선후]과정이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에 해당해요. 15세기 이후에는 수사학적인 역사서술이 퇴출되었으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수사학에 범위 '안에서'~]는 오답 선지가 되겠죠.

②[목/수][의의][구분][비교]

->2문단 마지막에 [헤르도토스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 -> 이를 직접 확인&탐구 ->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 -> 1문단-그러나 그러한 헤르도토스가 쓴 책이 '역사'이고 -> 1문단-그러한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책이니깐 -> 당연히 '페르시아 전쟁'을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했을 거임.]이므로 적절한 선지죠.

③[정의]

->1문단 [이 제목의 어원이 되는 histor는 원래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의 법정 용어였다.]라는 [정의]에서 확인 가능해요.

④,⑤[인과][선후][의의]

->[순환사관 = 한 번 일어났던 일이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 하여 다시 나타난다는 생각임 -> 따라서 (과거를 통해->미래 예측->후대인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되겠죠.(=⑤) -> 그러한 역사 서술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역사는 사람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삶의 학교'로 인식되었어요.(=④) 이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했음]이겠죠. 따라서 둘 다 적절한 선지에 해당해요.

20번 : ⑤[구분][비교][주장/근거]

->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하면

(가) 필라르코스 : 수사학적 역사 서술 강조(why?->[동정심, 과장된 묘사, 독자를 감동, 상상]과 같은 단어들이 근거가 돼요)(=①) / 폴리비오스 : 객관&정확한 역사 서술 강조(->필라르코스를 비판하니깐)

(나) 루키아노스 : 정확&객관 역사 서술 강조(->역사가의 마음=거울=왜곡&채색X->있는 그대로=객관&정확)(=②)

(다) 투키디데스 : 순환사관을 강조(->과거사에 대해 ~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날 미래의 일에 명확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 -> 과거는 되풀이 된다 -> 순환 사관 -> 역사의 효용성을 과거를 통한 미래 예측으로 봄 -> 따라서 당연히 역사는 객관&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③)

이죠. ⑤은 그래서 [(가), (다)는 모두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순환 사관->객관&정확성 강조)>실득력(수사학적 서술 강조)]을 중시하고 있군.]으로 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꾸어야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④[구분][비교][주장/근거]

->[과거사 가감 없이 전달 -> 객관&정확 강조]이므로 적절한 선지예요.

21번 : ②[주장/근거][비교]

->㉠=[역사 서술에서 정확성, 객관성, 순환사상, "역사의 효용성=과거를 통해 미래 예측 -> 후대인에게 교훈"]을 강조하는 입장이지요.

반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혹은 종교를 통한 과거에 대한 지식 전수, 구전된 서사시, 신의 뜻 증시, 신화적 세계관, 직접 확인&탐구X]의 서술이네요.

따라서 ②은 [신화와 전설 등의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면서 객관적 서술 태도가 배제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게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①[정의],③[정의],④[특징/사실],⑤[구분][비교]

->2문단 5번째 줄 [일리아스는 기원전 9세기의 시인 호메로스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다.]에서 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구전된 거니까 실제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했겠죠.(=③). 추가적인 근거는 2문단 밑 부분 [헤르토도스는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으로 서술하고자 함 -> 이러한 서술은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와 구별되는(=즉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한 서사시는 직접 확인&탐구하지 않았겠지.) 새로운 이야기 방식]에서 확인 가능함.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정확한 정보를 추출해내기 어려울 것이고(why? -> 직접 확인&탐구X, 구전된 것, 신화적 세계관에 입각이니까=④), 과거를 정확히 탐구하려는 의식도 찾을 수 없어요.(->그러한 의식을 갖고 새로운 이야기 서술 방식을 만든 친구가 헤르토도스이지요=⑤)

22번 : ⑤

->㉠=[앞세운->앞에 세우다->부사어+서술어]로 해석가능 한 것이죠. 따라서 ⑤=[남과 다르다 -> 부사어 + 서술어]에 해당해요. 사실 여기서의 서술어들은 항상 부사어를 가져야하는 서술어이고 이러한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하죠. 문법을 잘 공부해두면 이렇게 이득입니다 여러분.

①,④=[명이 들다/그들이 지다->주어+서술어]

②,③=[빛을 내다/힘을 쓰다=목적어+서술어]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25번]

23번 : ③[인과]

해당 문제는 수분 퍼텐션의 [정의]를 통해 개념을 파악하고 그로인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주는 게 핵심이에요. 4문단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짐 -> 이온 농도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은 낮아짐 ->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니까 물이 공변세포로(어디서부터?->토양->뿌리->줄기->잎으로 이동하겠지. 따라서 줄기로 부터 물이 잎의 공변세포로 들어옴) 들어와 기공이 열림(=①) -> 기공이 열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함&광합성 -> 포도당 생성 ->그런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이 열리면 물이 손실(왜?->대기 중이 잎보다 수분퍼텐셜이 낮으니까 기공이 열리면 잎의 수분이 대기중으로 확산되겠지.)&반대로 닫으면(->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되서 광합성을 못함->그래서 물&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낮에는 기공을 열고(물이 손실되더라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②)), 그렇지 않은 밤에는(->빛의 작용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안될 때) 기공을 닫아서(물 손실X)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낮에)와 물의 배출을 조절(낮에는 배출&밤에는 보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냄(=①)]의 과정이죠. 따라서 기공이 열리면(->낮에) 식물 내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④,⑤[인과]

->2문단 [대기 수분 농도<잎의 수분 농도] -> [잎의 표피의 기공을 통하여(=낮에 열리면) '잎->대기'로 물이 빠져나감(=확산) -> 이것을 '증산 작용'이라고 함 -> 이렇게 증산 작용으로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김 -> 장력에 따라 물관부의 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됨(=즉 줄기의 물관부->잎으로 물이 이동 by 증산작용=④) -> 그런데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마치 끈처럼)은 "물의 응집력>장력" 때문임(=⑤)]의 과정이므로 적절한 선지에 해당하네요.

24번 : ④[인과][정의][비교]

㉠ : [3문단-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3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을 -95MPa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뿌리->줄기->잎"으로 갈수록 수분퍼텐셜이 낮아지고 -> 그에 따라 물은 "뿌리->줄기->잎->기공->대기"로 확산된다고 했음]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물의 압력이 낮아진다. 그런데 물의 압력이 낮아지면 수분퍼텐셜도 낮아진다고 했음. 따라서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하게 되는 것은 적절해요.

㉢ : [증산 작용->잎의 수분이 대기로 나감->잎의 수분이 주니까 압력이 줄고 수분퍼텐셜도 낮아짐->그러면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게 됨]이므로 적절해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㉔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기공을 통해 잎의 수분퍼텐셜이 대기로 배출되죠. 즉 물이 [잎->대기]로 이동하는 과정이므로 수분 퍼텐셜은 대기가 더 낮다고 봐야해요. 물론 잎에서 대기로 물이 이동하면서 잎의 수분 퍼텐셜도 낮아지겠지만 대기보다는 낮아질 수 없다. 그러면 확산 현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5번 : ㉔[인과][비교]

->[일출~일몰]은 즉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한 낮과 밤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문제는 그러한 밤과 낮에 따른 기공의 개폐 현상의 주기와 그로 인한 수분 퍼텐셜의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죠. 사실 단순히 [토양>뿌리>줄기>잎>대기]의 수분 퍼텐셜의 상관관계만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잎'과 '토양'의 수분 퍼텐셜을 비교하면 무조건 잎의 수분 퍼텐셜이 작을 수밖에 없죠. 또한 둘의 수분퍼텐셜이 같을 수도 없으므로 선지에서 [토양의 수분 퍼텐셜]과 [잎의 수분 퍼텐셜] 접해있는 ①,③,④,⑤는 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답만 찾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낮->기공이 열림->잎의 수분이 대기 중으로 확산->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짐->그러다 밤이 되면 기공이 닫히고->대기 중으로 잎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잎이 수분 퍼텐셜이 증가(->why?->잎에서 물이 빠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토양에서부터 잎으로 다시 물을 장력&응집력을 통해 끌어올 것이므로->기공이 닫히면 점차 회복되는 것)함->하지만 토양의 수분 퍼텐셜만큼은 될 수 없음]이므로 그래프의 모양이 내려갔다 다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2013학년도 6월 모의수능 41~43번]

41번 : ③

42번 : ①

43번 : ②

->이 부분은 문법 파트에서 다룰게요. 답만 확인합시다.

[2013학년도 6월 모의수능 44~46번]

44번 : ①[인과][선후]

->1문단을 보면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에서 확인할 수 있듯 [먼저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 ->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구획된 섹터에 저장됨]이므로 [선후]관계를 바꾸어서 선지를 구성한 유형에 해당해요.

②[정의]

->탐색시간의 [정의]를 파악하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죠. 탐색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동거리가 늘면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겠죠.

③[인과]

->디스크 스케줄링은 2,3,4문단에서 각각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었죠. 따라서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해주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이러한 처리 순서에 따라서 [탐색 시간이 줄어들고->그러면 접근 시간이 줄고->디스크 성능이 향상]된다.

④[정의]

->대기 시간의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되는 선지에 해당하네요. 대기 시간은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같이 속도가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⑤[목/수][인과]

->[대기시간+탐색시간=접근시간]인데 ->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조정해 탐색 시간을 줄이면 -> 접근 시간이 줄고 -> 접근 시간은 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므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45번: ③[비교][예시]

->우선 스케줄링들을 [비교]해가면서 글을 읽었어야 해요.

FCFS :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 하는 방법

SSTF :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부터 처리하는 방법

SCAN : 데이터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

LOOK : SCAN이랑 유사한데 양 끝을 오가지 않고 최대&최소값 사이만 오가면서 처리하는 방법

-><보기>에서 (가), (나)는 모두 우선 요청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지는 않죠. 따라서 둘다 FCFS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림1은 기존 진행 방향(50->53)과는 반대로 가고 있으므로 LOOK, SCAN 역시 불가능함. 따라서 SSTF네요. 또한 [53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계산해보면 37임.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따라서 FCFS가 확실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편 (나)는 보면 진행 방향에서부터 양 방향을 모두 훑는데 핵심은 양 끝까지는 가지 않고, 최대&최소값까지만 훑죠. 따라서 SCAN은 아니고 LOOK에 해당하네요.)

46번 : ①[비교][예시]

->이런 건 직접 [예시]를 들어서 해보면 편함. 30 50 90을 갖고 해봅시다. 내림차순의 경우면 [90->60->30]순으로 요청이 들어옴. SSTF는 가까운거 부터 처리하는데 0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0->30->60->90]만큼의 탐색 시간이 걸림. LOOK은 최대&최소값을 오가면서 훑는건데 진행방향은 0부터니까 [0->30->60->90]과 같이 탐색하겠죠. 따라서 둘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아요.

②[비교][예시]

FCFS : [0->90->60->30]이므로 90+30+30=150만큼 이동함.

SSTF : [0->30->60->90]이므로 90만큼 이동함. FCFS>SSTF

③[비교][예시]

오름차순의 경우에는 [30->60->90]순으로 요청됨

FCFS : [0->30->60->90] 90만큼 이동함.

LOOK : [0->33->60->90] 90만큼 이동함. 둘이 같음.

④[비교][예시]

FCFS : [0->30->60->90] 90만큼 이동함.

SCAN : [0->30->60->90->끝] 90+@만큼 이동함. SCAN이 FCFS보다 크거나 같음(같은 경우는 맨 끝이 포함될 경우)

⑤[비교][예시]

->끝 번호가 포함되면 0부터 시작이라 LOOK&SCAN 모두 양 끝을 다 훑게됨. 따라서 같은 거리를 이동함.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7~50번]

47번 : ①[거시][구분][비교]

->㉠과 ㉡의 견해에 대해서 각각 소개하고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는 글이죠. 너무 쉽네요.

48번 : ⑤[정의]

->㉡은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임. 따라서 소신에 따라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이 찬성이면 찬성할 수 있겠죠.

①[정의]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해야 해요. 그냥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이니까요.)

②[정의]

->다르더라도 기권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반대해야 돼요.)

③[정의]

->자기 소신대로 하면 되겠죠. 공약과는 상관없이 소신이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④[정의][사실/특징]

->3문단 [이에 따르면(=앞의 규정의 목적에 따르면='현실적 표출된 국민의 뜻<국가의 이익>을 고려) 국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음(->why?->국가의 이익만 고려하면 됨)]에서 확인 가능하죠. 즉 굳이 당론에 안 따라도 상관없어요. .

49번 : ④[구분][비교]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 -> 그러한 대표자 선출권으로 국민은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 -> ㉠인 자유 위임 방식에 해당이므로 적절하지 않네요. ㉡는 ㉠인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분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①[조건]

->4문단 [국가에 따라서는~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는 말임->그 말은 선택적이라는 말]에서 확인 가능해요.

②[정의]

->마지막 문단에 ㉡에 대한 [정의]가 딱하니 있었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함.]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네요.

㉓[비교] ,㉔[한계/목수]

->[명령적 위임 방식 -> 대표자가 국민의 뜻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 -> 근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 -> why? -> 국민 뜻 다르니까 ->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게 자유 위임 방식 -> 이걸 대표자가 소신대로 하되 국가의 이익을 국민의 뜻 보다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거임 -> 근데 이러면 또 국민&대표자 신뢰 관계 약화(=㉓) -> 민주주의 본래 의미 퇴색의 문제점 생김 -> 또한 대표자가 사익 추구를 위해 권리 남용해도 제재할 수 없음 ->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시 직접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함 =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통제함 -> 그러면 다시 (국민>국가의 이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㉔))가 되므로 적절한 선지네요.

50번 : ㉒

㉒ :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내고 밝혀낸다.

㉓ :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같네요. 그래요. 굿.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19번]

17번 : ㉔[비교][인과]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작다->같다]로 고쳐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근거로는 2문단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제작한 후,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을 잡아요. 근데 이걸 하나의 마스크에서 나오는 동일한 패턴이 여러 개가 복사된다는 말이지, 마스크와 기판위에 패턴이 같다는 말이 아니죠. 또 여러분들이 근거로 잡는 게 3문단 [마지막 문장 = 반도체 기판에는 ㉔와 같이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를 근거로 잡는데 맞는 말 맞아요. 맞는 말인데, 단 조건은 [양성 감광 물질을 사용할 때만 맞음. 마스크의 패턴이란 건 3문단 [중간 - 빛은 마스크의 '패턴을 제외한 부분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며 -> 이 말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자, 그림자가 드리운 부분은 ㉔의 그림에서 그 마스크가 까맣게 칠해진 부분이라는 말. 그게 패턴이란 소리.]와 같이 ㉔의 그림에서 까맣게 칠해져 빛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패턴'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양성 감광 물질'을 사용할 때는 기판 위에 새겨지는 것과 같은데, 음성 감광 물질을 사용할 때는 그 부분이 제거되고 빛을 받은 부분만 남죠. 따라서 음성 감광 물질일 때는 마스크의 패턴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이 기판 위에 패턴이 되므로 마스크의 패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인 기판 위에 크기가 결정되어요. 따라서 [작다->같다]로 선지를 고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예요. 사실 그냥 풀고 맞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㉓[사실/특징][정의]

->1문단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 2문단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를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선지에 [반도체 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즉 [반도체 소자는 수십~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게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드는 게 맞나 -> 아 2문단 첫 문장을 보니까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반도체 기판 위에 패턴을 만든다고 했으니 맞는 말이네.]가 올바른 사고 과정이란 거죠. 그냥 1문단만 보고 답 골랐으면 조금 아쉬워요..

㉔[인과]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 제작 -> 빛을 사용하여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 ->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이므로 적절하네요.

㉓[비교]

->[포토리소그래피&판화는 유사성이 있다고 했어요. 판화의 원판을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만들 -> 어쨌든 조각칼을 판화의 원판&레이저는 마스크 패턴을 만드는데 쓰임]이므로 적절하죠.

㉔[인과]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는 노력과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 -> 아 짧은 파장에는 반응하는 감광 물질은 기존의 감광 물질과 다른가보네 ->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다르겠구나.]가 되면 돼요.

18번 : ㉓[예시][비교][인과]

A : 양성 감광 물질->빛 받은 곳이 없어짐 -> 즉 까맣게 패턴이 칠해진 곳만 남음.

B : 음성 감광 물질->빛 안 받은 곳이 없어짐 -> 즉 까맣게 패턴이 칠해진 곳이 없어짐.

[A->B]순으로 적용시키니까 처음에 A패턴 모양이 남고, 그 다음에 거기서 B패턴의 모양인 가운데를 빼주면 돼요. 그게 ㉓이죠 [ㅇㅋ? -> ㅇㅋ!]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19번 : ㉔[인과]

->늘 말하지만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데?]를 놓치지 않고 읽어주셨으면 쉽게 고르는 선지죠. 이 글의 핵심은 [반도체 패턴 크기 작아지면 -> 반도체 소자의 크기 작아지고 -> 집적도가 높아져서 개이득임 -> 그 역할을 하는 게 포토리소그래피]였죠.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 ㉔의 앞 문장을 보면 [4문단 ㉔ 앞 문장 =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패턴의 크기 작아짐 -> 소자 크기 작아짐 -> 집적도 높임 -> 개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㉔이죠.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묻는 선지였죠. 지문에서는 [A->B], [B->C]임을 쥐놓고 [A->C]의 관계를 이해했는지 묻는 거요. 자주 나오니 기억해두세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46번]

44번 : ㉔[인과][구분]/㉑,㉒[인과]/㉓[가정/조건]

->[대기 중에는 질소, 산소 분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체 분자들이 있음 -> 이들 중(=다양한 기체 분자들 중) 어떤 산소 '분자 하나'는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 -> 충돌을 할 때마다 이 분자의 '운동 방향&속력'이 변할 수 있음(=즉 충돌->운동 방향&속력)=(㉑) -> 짧은 시간 마다 운동 방향&속력이 변하니까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㉒) -> 그래서 '한 분자'의 정확한 운동 궤적이 아니라 '어떤 구간의 속력을 가진 분자 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만 알 수 있음=그게 '분자들의 속력 분포'임 -> 그런데 이 속력 분포를 고려할 때 위에 언급한 산소처럼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는 -> 인력은 무시 가능(=㉓) ->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고려하면 됨->근데 분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각'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분자들이 '에너지를 주고 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음->즉 '한 분자'단위에서의 에너지는 서로 주고 받으면서 변하지만 그러한 분자들을 모아놓은 '기체'단위에서 에너지를 일정하다는 말. 다만 그 안에서 '각' 분자들의 에너지만 주고 받으면서 변할 뿐!(=㉔)]이 1~2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사고의 흐름이죠. 따라서 ㉔은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으므로 [증가한다 -> 일정하다]로 바꾸어야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㉓[가정/조건]

->사실 이 선지는 위의 선지를 판별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명시적인 근거인 3문단 [기체 분자들이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에서 확인 가능해요.

45번 : ㉓[구분][비교][인과]

->항상 <보기>는 [뭘 묻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이야기 토할 때까지 할 듯. 핵심은 [아르곤 분자는 크립톤 분자보다 가볍다 -> 질량 이용해서 비교], [아르곤 기체가 두 개인데 온도가 다름 -> 온도 이용해서 비교]였죠. 이 부분은 지문에서 [인과]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즉 [온도&질량 -> 기체 분자들의 속력 -> 속력 분포 그래프]의 인과를 파악하는 게 핵심.)

[온도 상승 -> 기체의 평균 운동E 증가 -> 그래프 꼭짓점이 속력이 빠른 쪽으로 이동 -> 납작&넓어짐]
[분자의 질량이 큼 -> 평균 속력이 감소 -> 분포 그래프의 꼭짓점이 속력이 느린 쪽으로 이동 -> 뾰족&좁아짐]

->그 말은 우선 온도 비교하면 크립톤의 두 분자 중 온도가 높은 친구가 더 넓고 납작하죠. 그리고 크립톤과 아르곤을 비교하면 아르곤이 질량이 더 작으니까 더 넓고 납작함. 즉 [A=크립톤, B=아르곤25, C=아르곤 727]임. 온도가 높고 질량이 작을수록 넓고 납작해지니까 아르곤727이 가장 넓고 납작, 그리고 아르곤25고, 크립톤이 가장 뾰족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46번 : ㉔[인과]

->이거 역시 지문에 제시된 [인과]를 정리해놓았으면 쉽게 해결 가능함. 이해가 되는 게 가장 좋고, 이해가 안 되거나, 애초에 이해를 바라지 않으면서 제시된 부분(=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 없이 덩그러니 인과만 주어졌을 때)은 표시를 해두고 가는 게 좋겠죠. 선지에서 거의 항상 건드리니까요.

-회전 속력이 일정할 때
[각도 커짐->더 느린 분자 검출]
[각도 작아짐->더 빠른 분자 검출]

-각도가 일정할 때
[회전속도 빨라짐->더 빠른 분자 검출]
[회전속도 느려짐->더 느린 분자 검출] = ㉓의 근거

따라서 속력이 같고 각도가 커지면, 더 느린 분자들이 검출되고, 기존 통과하던 분자들이랑 빠른 친구들은 틈이 도달하기 전에 부딪히겠죠.

㉑[목적/수단]

->4문단 첫 문장 [그림은 맥스웰의 속력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밀러와 쿠슈가 사용했던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 5문단 마지막 문장 [그 결과는 맥스웰 이론에 부합하였다.] 실험했더니 실제로 부합했다는 거죠. ㅇㅋ.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②[가정/조건],③[사실/특징]

->[원판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함 -> 첫 번째 틈으로는 통과하는 분자들의 속력은 다양함 -> 하지만 두 번째 틈은 회전 원판의 회전 속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정한 속력 구간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통과함 ->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 그래서 그 특정한 속력 구간보다 빠르면 틈이 오기 전에 / 속력 구간 보다 느리면 틈이 지나간 후에 부딪혀서 통과를 못함]의 과정이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주간 과제물

문학

- ① 평가원 고전시가 기출
- ② 자체 제작 해설

(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희 치다라 안자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여 내닷다가 두엄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날넨 널식만정 에혈*질 번 하쾌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에혈: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부에 피가 맺힌 것.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웃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엇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라
 집은 내 지으마 ㉠ 웁은 네 물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쪼개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 살린 살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웃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였거든
 은혜란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 호수: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
 (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
 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
 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여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
 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
 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
 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
 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
 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
 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
 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
 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

3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드러나 있다.
- ③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특정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밑줄 친 대상 간의 관계가 (가)의 '두터비', '파리', '백송골' 간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달은 때를 알리고 개는 도적을 살피고
 소 말은 큰 구실 맡겨 다 기름 직하거니와
 저 매는 꿩 잡아 절로 바치든가 나는 몰라 하노매라.
- ②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걸이 검은들 속조차 검은썬나
 아마도 걸 회고 속 검은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 ③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 들어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앞에서나 자고 가자.
- ④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 올까 하였더니
 봉황은 아니 오고 오작만 날아든다
동자야 오작 날려라 봉황 오게 하리라.
- ⑤ 장공에 뺨는 솔개 눈 살핌은 무슨 일인가
 썩은 쥐를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는구나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 될까 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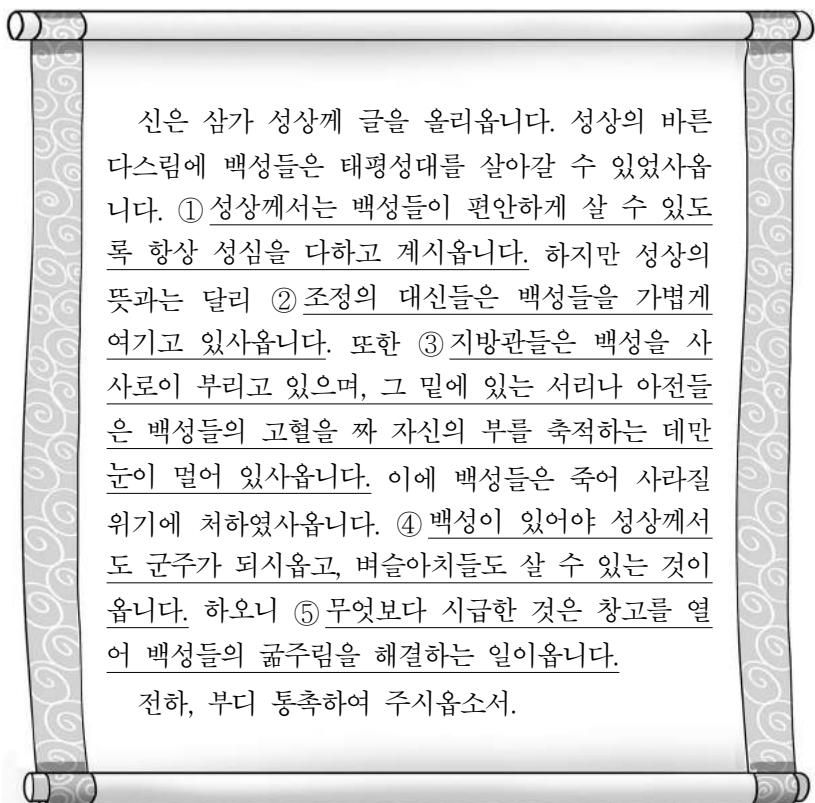
4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 ① ‘고공’이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는 불화가 있었군.
- ②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료 사회에는 불신이 팽배했군.
- ③ ‘나’는 외적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적의 재침략을 걱정하고 있군.
- ④ ‘나’가 집안의 일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바라는 인물이군.
- ⑤ ‘고공’이 ‘옷 밥’만 탐했다는 것으로 보아 관료들은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욕만을 채우고자 하였군.

43. (다)의 논지를 긍정하는 신하가 군주에게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관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발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별 소리

산에 오면
큰술발에 빠꾸기 소리
잔술발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별에 오면 별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랴시고
㉢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박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지고
㉤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쉬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②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 ③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④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 ⑤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 ② '오라는 곳'이 없음.
- ③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 ④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 ⑤ 갈 곳 없이 '열십자 복판'에 서 있음.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가)의 '정주 광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④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⑤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17. (다)의 ㉠~㉣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 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가)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A]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들쏘냐.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울울리: 우거진 속.

(나) 뒷집의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한 말 못 찻다
 주는 것 마구 찢어 쥐어 빚어 피어 내니 [B]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어와 저 백구(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냐
 ㉢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쏘냐
 조각배에 달을 싣고 뉘싯대를 흘던질 제
 ㉣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萬戶侯)*인들
 부러우랴.

헛글고 싯근*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찍을 쳐 돌아오니
 ㉤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四面) 청산이 옛 모습 나노매라 [C]
 귀밑의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김광옥, 「울리유곡(栗里遺曲)」 -

*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제후 또는 세도가.
 * 헛글고 싯근: 흐트러지고 시끄러운.

(다) ㉠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오로지 원림(園林)이나 누정(樓亭)뿐이겠는가?
 천하의 사물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원림이나 누정의 경우가 특별히 더 그런 것뿐이다.

서울에서 수십 리 이내의 가까운 지역에는 사람들이 조성한
 별장과 농장이 많다. 어떤 것은 강가를 따라 있고, 어떤 것은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어떤 것은 산을 등지고 계곡에
 걸쳐 있기도 하다. 제각기 멋진 풍경 하나쯤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산수(山水)를 평가하고 논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저쪽 경치를 들어다 이쪽 경치와 비교하면서 앞다퉈 제가 본
 풍경을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정말 웃을 노릇이다.

빼어난 경관과 아름다운 풍경을 뽑내는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랴?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
 는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바뀌고, 지경(地境)
 의 변화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모자라다며 제각기 자랑
 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어느 것이 뒤진다며 제각기 평을
 내린다면, 이것은 맛 좋은 술에게 소금처럼 짜지 않고 왜 맛이
 좋으냐고 혼내는 격이요, 양고기와 돼지고기에게 채소와 과일
 처럼 담박한 맛을 내지 않고 왜 그렇게 기름진 맛을 내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다. ㉡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하의
 이름난 산과 빼어난 승경(勝景)을 모조리 자기가 소유한 뒤에
 라야 비로소 흡족해 할 것이다. 그러면 작은 불거리에 구속
 되어 큰 불거리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나 않을까?

- 박규수, 「범희문회서도원림(范希文懷西都園林)」 -

2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자족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는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28.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의 관점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다)는 범희문이라는 사람이 화려한 저택을 거부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연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세속적
 소유를 거부한 범희문의 태도에 기대어 당대 사대부들의 삶에
 드러난 속물적 태도를 비판한다. 나아가 대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 산림에 묻혀서 지락을 아는 것
- ② ㉡: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는 것
- ③ ㉢: 갈대숲을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것
- ④ ㉣: 만호후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는 것
- ⑤ ㉤: 구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것

29. [A]와 [C]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C]에서 봄은 모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② [A]는 [C]와 달리 봄을 겨울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③ [C]는 [A]와 달리 의인화를 통해 봄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A]의 봄은 흥겨움을, [C]의 봄은 서글픔을 불러일으킨다.
- ⑤ [A]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C]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봄을 묘사하고 있다.

30.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③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④ 공동체를 위한 헌신적 삶이 드러나 있다.
- ⑤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 있다.

31. ㉞와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휴양림을 늘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으니 집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야겠어.
- ② 주말에 지리산에 갔는데 갈 때마다 모습도 다르고 느낌도 달라서 참 좋았어.
- ③ 가족 여행 때 다녀온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을 알려면 「관동 별곡」을 읽어야 해.
- ④ 단풍은 설악산이 최고라 하니 단풍을 구경하려면 당연히 설악산으로 가야 해.
- ⑤ 내가 한라산을 가 보고 싶은 이유는 유명한 산악인들이 추천하는 명산이기 때문이야.

34. [A], [B]에 나타난 서술자(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높은 곳에 오르는 행위를 사물의 근원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 ② [B]: '비로봉'에 오르는 행위의 의미를 성인의 체험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다.
- ③ [A]와 [B]: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
- ④ [A]와 [B]: 자신의 여행 체험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⑤ [A]와 [B]: 자신의 시야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

35. (다)를 <보기 2>와 같이 읽는다고 할 때, <보기 1>의 ㉠와 같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보기 1>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반복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거기에서 리듬감을 느끼고, 그 리듬의 틀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간혹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더라도 하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또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면 급한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다시 ㉠ 원래의 간격을 회복하면 기대감이 충족되어 편안함을 느낀다.

<보기 2>

|| 금 | 강 | 일 | 만 || 이 | 천 | 봉 | 이 || 눈 | 아 | 니 | 면 || 옥 | 이 | 로 | 다 ||
 ①
 || 혈 | 성 | 루 | || 을 | 라 | 가 | 니 || 천 | 상 | 인 | || 되 | 었 | 어 | 라 ||
 ② ③
 || 아 | 마 | 도 | || 세 | 부 | 진 | 화 | 부 | 특 | 은 || 금 | 강 | 인 | 가 || 하 | 노 | 라 | ||
 ④ ⑤
 * || || : 한 음보의 길이

(가) 차디찬 아침 이슬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소년아 내가 났다니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

큰강 목놓아 흘러
여울은 흰 돌쪽마다
소리 석양(夕陽)을 새기고

너는 준마 달리며
죽도(竹刀) 저 끝은 기운을
목숨같이 사랑했거늘

거리를 쫓아다녀도
분수(噴水) 있는 풍경 속에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서풍(西風) 뺨을 스치고
하늘 한가* 구름 뜨는 곳
회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이육사, 「소년에게」 -

- * 진준가: 진주인가.
- * 한가: 가장 끝 부분.

(나)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 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목(裸木)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별받는 자세로 서서
아 별받은 몸으로, 별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魂)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 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짝을 내밀고
㉠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사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 아아, 마침내, 끝끝내
꽃 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 피는 나무이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

(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 돌아보니 만첩(萬疊) 청산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청하(靑荷)*에 밥을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꿰어
노적(蘆荻) 화총(花叢)*에 배 매어 두고
일반(一般) 청의미(淸意味)*를 어느 분이 아실까

산두(山頭)에 한운(閑雲) 일고 수중에 백구(白鷗) 난다
무심(無心)코 다정한 이 이 두 것이로다
일생에 시름을 잊고 너를 좇아 놀리라

장안(長安)을 ㉣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 -

- * 청하: 푸른 연잎.
- * 노적 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 일반 청의미: 자연이 주는 참된 의미.
-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 ②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사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해 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구도적인 자세를 통해 사물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2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차디찬’과 (나)의 ‘영하 13도’는 모두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
- ② (가)의 ‘냇’과 (나)의 ‘혼’은 모두 숭고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의 ‘박꽃’은 순수함을, (나)의 ‘꽃’은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가)의 ‘사랑했거늘’은 화해의 의미를, (나)의 ‘으스러지도록’은 대결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쫓아다녀도’는 동경을, (나)의 ‘들이받으면서’는 거부를 의미한다.

23. (가)와 (다)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다)에 비해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② (다)는 (가)에 비해 음악적 리듬감이 두드러진다.
- ③ (다)는 (가)와 달리 대구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 ⑤ (가)와 (다) 모두 영탄의 어조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육사의 유년 시절은 그가 쓴 수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항일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며 자랐는데, 이러한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다고 고백한다. 또 그는 고향의 낙동강가에 앉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했다고 한다. 이러한 유년의 경험은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삶과 시를 일치시킨 그의 시 세계를 구축하게 하였다.

- ① 3연의 '큰강'은 역사적 현실의 비유적 표현이겠군.
- ② 4연의 '곧은 기운'은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이겠네.
- ③ 5연의 '동상'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려는 당당함의 표상이겠네.
- ④ 6연의 '노래'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이겠군.
- ⑤ 7연의 '너조차 미친들 어찌랴'에서는 화자의 시련 극복의 의지가 느껴지는군.

25. (나)의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앞과 뒤에 배치된 시상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 ② ㉠과 ㉡은 화자의 감정과 인식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한다.
- ③ ㉠의 '천천히', '서서히'는 '씩'이 '있'이 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함을 표현한다.
- ④ ㉡은 '자기의 온몸으로'가 '자기 몸으로 꽃 피는'으로 비약하는 데 대한 정서적 대응이다.
- ⑤ ㉠에서 ㉡으로 가면서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된다.

26. (다)의 ㉠과 ㉡을 중심으로 (다)를 <보기>와 같이 정리하여 감상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상	대상의[심상]	화자의[태도]
㉠[돌아보니]	청산	월백	더욱 무심하여라
㉡[돌아보니]	장안	홍진	잇은 때가 있으랴

- ① '만첩'은 ㉠과 ㉡의 대상 간의 단절을 강조하는 시어이다.
- ② '월백'은 '홍진'과 대비되어 강호 공간의 청정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부각한다.
- ③ ㉠은 '더욱 무심하여라'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자기 절제의 내면세계를 드러낸다.
- ④ ㉡은 '잇은 때가 있으랴'와 연결되어 강호 공간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정치적 이상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 ⑤ ㉠과 ㉡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던 화자가 선택한 최종적인 삶의 방향은 ㉡의 대상이다.

(가)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어.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조지훈, 「승무」 -

(나)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삐꾸기가
울음 울어
떼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뜰*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삐꾸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삐꾸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삐꾸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A]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 하에서 울던 한 마리 삐꾸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細石)*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삐꾸새」 -

* 길뜰: 길이 덜 든.
* 세석: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다) 무등산 한 활개 피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떼쳐 와 ㉠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 **높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회지 마나
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줄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으라 내리락 모이락 홀으라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곶 좇느뇨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피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굶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샤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모래톱.
* 노화: 갈대.

3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나타낸다.
- ④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긍정적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긴장감 있게 제시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승무」는 무녀(舞女)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관객이 무대와 인물을 관조하거나 그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① 어두운 '밤'은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관객의 관심이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
- ②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과 기우는 '달'은 하강과 소멸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유한한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한다.
- ④ 6연의 천상의 '별빛'은 번뇌에서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된다.
- ⑤ 7연의 '별빛'은 무녀의 눈과 연결되어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서로 이어 준다.

34. (가)의 '서러워라'와 (나)의 '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설움은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나)의 설움은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된다.
- ③ (가)와 (나)의 설움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가)와 (나)의 설움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화자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정서이다.
- ⑤ (가)는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통해, (나)는 '철쭉꽃'의 색채를 통해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는 화자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노력이 나타난다.
- ② 2연의 '실제의 뼈꼭새'는 '여러 마리의 뼈꼭새'와 상반되는 의미를 형성한다.
- ③ 2연~4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 ④ 3연~4연에서 '산봉우리', '강', '남해', '섬'이 잇달아 연결되면서 변화와 생성의 세계를 보여 준다.
- ⑤ 3연~5연은 연의 끝 부분에 '보았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깨달음의 의미를 강조한다.

36.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울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송순이 「면앙정가」에서 펼쳐 보인 세계는 흔히 '면앙우주'라고 일컬어진다.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을 추구했다. 그는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했다.

- ① ㉠의 '제월봉'이 '무변대야에 무슨 짐작'을 한다는 표현에는 높은 이상을 향한 작가의 의지가 자연물에 투영되어 있군.
- ② ㉡의 '늪은 용'이 '선잠을 갖 깨어'라는 표현에는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늪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담겨 있어.
- ③ ㉢의 '정자'가 '청학'처럼 '두 날개 벌렸는 듯'하다는 표현에서 면앙정이 비상(飛上)을 위한 심성 수양의 장소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물'이 '밤낮으로 흐르는' 모습을 통해 작가도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쉽 없이 행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 ⑤ ㉤의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굽는 듯 잇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일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군.

(가) 鶯子初來時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喃喃語不休 지지배배 ㉠ 그 소리 그치지 않네
 語意雖未明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似訴無家愁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 구멍 많은데
 何不此淹留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燕子復喃喃 제비 다시 지지귀며
 似與人語酬 사람에게 말하는 듯
 榆穴鶴來啄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槐穴蛇來搜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나
 가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지 엉킨 묵은 밭도 쉽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라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사
 ㉤ 훌륭한 군자들이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입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 세정: 세상 물정.

(다) 나는 전에 관동 지방에 유람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강 너머 물가를 바라보니 인가가 물가의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단풍나무와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초가지붕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비쳐드니 서리 내린 나뭇잎이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였습니다. 땀나무를 실은 작은 배와 소금 실은 조각배가 서로 바라보며 오가고, 채소밭과 논두렁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더군요. 또한 지팡이를 짚고 밭두둑에 멈추어 서 있는 사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사람, 어린애를 데리고 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 나란히 쟁기를 끄는 사람도 있었으며, 닭과 개가 여기저기 나다니고 밥 짓는 연기가 간간히 일어났지요.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내달리고 흥취가 일어나 ‘훗날 식구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이 이야기를 내 친구인 포원자에게 하였더니, 포원자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몸소 가 보았던 곳이라네. 내가 거기에 가 보니, 마을 앞에는 메마른 자갈밭만 보이고 채소의 싹도 듬성듬성하게만 돋아나 있고 집은 낮은데다가 비좁아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야 했었네. 마을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네. ‘여름에 장마가 저 강물이 불어나

면 전답이 어김없이 물바다가 되어 한 해 동안 애써 농사 지은 작물을 서쪽 물결에 보내 버리게 됩지요. 오래도록 가뭄이 계속되면 자갈땅이 후끈 달아올라 온갖 곡식이 바싹 말라 버린답니다. 오직 비와 햇볕이 때에 맞고 들판과 습지의 곡식이 모두 잘 익어야 우리 마을에서는 느긋하게 숨을 내쉬며 근심이 없을 수 있지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아침과 낮에는 그럭저럭 지낼 만하였지만, 어스름이 내린 뒤에는 문을 나가면 호랑이에게 물려가기 때 문에 문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호랑이 그물을 친다네.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은 집이 없었고, 이가 없는 집이 없었네. 가려운 데를 긁어대느라 부스럼이 되었고,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지. 그때는 정말이지 미친 듯 고향을 지르고 싶었네. 앞서 말한 땀나무와 소금 실은 작은 배, 채소밭과 논둑을 몽땅 다 나에게 주면서 하룻밤을 더 머물라고 부탁해도 나는 머리를 내저으며 서둘러 도망갔을 걸세.”
 ㉦ 이 말은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깊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 이학규, 「어떤 사람에게(與某人)」 -

4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 ③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한 자각이 나타나 있다.
- ④ 현실과의 단절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개선하고자 한다.

4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비적 관계에 있는 시어를 배치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 경로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풍자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에 비해 화자의 내면이 잘 드러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4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공감할 수 없는 것
 ㉡: 서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것
- ② ㉠: 화자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
 ㉡: 서술자가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
- ③ ㉠: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초래하는 계기
 ㉡: 서술자가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인식하는 계기
- ④ ㉠: 화자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원인
 ㉡: 서술자가 체념적 태도를 갖게 되는 원인
- ⑤ ㉠: 화자의 외로움을 확대시키는 원인
 ㉡: 서술자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원인

49.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50. (다)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의 서술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도심의 한복판에서 매연과 소음 속에 살아가는 데 지쳤어. 지난 여름에 한 번 들렀다가 마음에 품었던 능수산이 생각나는군. 이곳을 떠나 능수산의 울창한 숲과 강물을 보며 여유롭게 살고 싶어.

- ① 능수산이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까요? 그곳은 그곳대로 당신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 ② 선불리 그곳으로 이주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 ③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시련의 시기를 거치게 마련입니다. 몸이 머무는 곳이 바뀐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요?
- ④ 현실을 벗어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는 당신의 지친 삶을 치유하는 최선책이 아닙니다.
- 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을 지향합니다. 당신이 능수산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분명 또 다른 이상향을 꿈꿀 것입니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39~43번]

(가) [작자 미상 - 사설시조]

작품 해설 : 두꺼비가 있네요. 그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자신보다 몇 배가 큰 두엄더미에 뛰어 올라요. 졸라 만족한 성취를 느끼는 두꺼비의 눈에 건너편 산 위에 떠 있는 송골매가 보이네요!?. 그 순간 두꺼비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두엄더미 아래로 뛰어 내려 몸을 피하죠. 근데 자빠져요. ㅋㅋ 두꺼비는 위기에서 재빨리 빠져 나왔으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따라서 이 시조는 두꺼비를 통해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만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어요.. 즉,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하겠네요.

<작품 원문>

두터비파리를물고두엄우희치드라안자
건넌산바라보니白松骨이서잇거늘가슴이금즉여풀덕쉬여내듯다가두엄아래젓바지거고
모쳐라늘낸낼식만정에혈질번헉괘라

<현대어 풀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더미 위에 뛰어올라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어서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리다가 두엄더미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내가 날래기 망정이지 멍이 들뻔 했구나.

(나) [허전 - 고공가]

작품 해설 : 내용은 처음의 한 아버지가 나라를 연 이래, 여드레갈이의 살림살이를 차려 놓고 인심을 많이 베풀어 국초(國初)의 머슴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검소했대요. 그러나 현재의 머슴들은 밥 사발의 크고 작음과 의복의 좋고 나쁨을 다들 뿐, 얼마 전에 화강도가 쳐들어 와 집안 재물을 모두 망쳐 놓았는데도 함심협력해서 농사를 지으며 도둑을 막을 생각은 않고, 화살을 방치해 두고 의복과 먹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개탄하다 보니 어느새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다는 것입니다. 작품에 나타난 우의를 살펴보면, '처음의 한 아버지'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李成桂)를 우의한 것이고, '여드레갈이'는 조선의 팔도들, '고공'은 조정의 신하들을, '화강도'는 임진왜란 때 쳐들어 온 왜적을, '여름짓기' 곧 '농사'는 국사(國事)를, '밥 사발'은 나라에서 주는 녹봉을 각각 우의한 것이예요. 이처럼 작품 전편이 우의적 수법으로 짜여 있다는 데 특색이 있어요. 작자는 임진왜란의 참화로 유교적 이상이 깨어진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이러한 현실을 성실하게 수습하려 들지 않는 신하들의 나태한 모습을 애달픈 심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비극적 감정의 이면에는 유교적인 이상 사회를 재건하려는 숭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원익(李元翼)은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를 지어 이 노래에 화답하였어요. → [고공답주인가](#)

< + 현대어 번역 >

옷 밥을 얻고 들 먹는 저 雇工(고공)아, 우리 집 <u>그별</u> 을 아느냐 모로느냐. 비오는 날 일 업술 지 솟 꼬면서 니르러라. <u>처음의 한 아버지</u> 사름소리허려 홀 지, 조부모 :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를 가리킴 仁心(인심)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풀 췌고 터을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서리 보십 장기 소로 田耨(전답)을 <u>기경</u> (起耕)하니, 오려는 터밭치 <u>여드레</u> 그리로다. 子孫(자손)에 傳繼(전계)하야 代代(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조커니와 雇工(고공)도 근검(勤儉)터라.	제 집 옷과 밥을 제쳐 놓고 이집 저집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u>소식</u> (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조부모님께서 <u>살림살이</u> 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씨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기경하니, 올벼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도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	------------------------------------------------------------------------------------------------------------------------------------------------------------------------------------------------------------------------------------------------------------------------------------------------------------

<집안의 내력>

저희마다 여름 지어 가을여리 사던 것을, 요사이 雇工(고공)들은 <u>험</u> 이 어이 아조 업서, <u>밥 사발</u> 크나 작거나 동웃시 <u>쪼코</u> 즘나, 마음을 <u>뒤흔</u> 는 듯 호슈를 <u>시오는</u> 듯,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u>밥그릇</u> 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루는 듯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듯,
--------------------------------------------------------------------------------------------------------------------------------------------	--------------------------------------------------------------------------------------------------------------------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숨 일 감드려 흘깃할깃 흐느낀다.

너희니 일 아니코 時節(시절) 좇춘 소노와,

굿득의 니 세간이 풀러지게 되야는디,

엇그지 火強盜(화강도)에 家産(가산)이 蕩盡(탕진)하니,

집 흐나 불타 붓고 먹을 쟈서 전혀 업다.

큰나큰 세스(歲事)를 었지하여 니로려료

金哥(김가) 李哥(이가) 雇工(고공)들이 시 막음 먹어슬라.

무슨 일에 반목을 일삼느냐?

너희들 일 아니하고 흥년조차 들어서,

가득이나 내 살림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엇그제 강도를 만나 가산이 탕진하니,

집은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네.

크나큰 세간살이를 어떻게 해서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이, 새 마음을 먹으려무나.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피해>

너희니 절머는다 헐 헐나 아니손다.

헐 소터 밥 먹으며 매양의 恢恢(회회)하라.

헐 막음 헐 뜻으로 티름을 지어스라.

헐 집이 가음열면 옷 밥을 分別(분별)하라.

누고는 장기 잡고 누고는 소를 몰니,

밭 갈고 논 살마 벼 세워 던져 두고,

날 도흔 호미로 기름을 미야스라.

山田(산전)도 것츠렸고 무논도 기워 간다.

사립피 물뚝 나서 벗 거터 세울세라.

七夕(칠석)의 호미 씻고 기름을 다 민 후에,

솻 쏘기 뉘 잘 하며 섬으란 뉘 엇그라.

너희 지조 세아려 자라자라 맛스라.

그를 거둔 후면 成造(성조)를 아니하라.

집으란 내 지으게 웁으란 네 무더라.

너희 지조를 내 麟酌(짐작)하엿노라.

너희도 머글 일을 分別(분별)을 하려무나.

명석의 벼를 넉 도흔 히 구름 씨어,

벗뉘를 언지 보라.

방아를 못 찌거든 거츠나 거춘 오려,

옥 긋든 白米(백미) 될 줄 뉘 아라 보리스니.

너희는 젊다 하여 생각하려고 아니하느냐?

한 술에 밥 먹으면서 항상 관대하고 여유 있게 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려움(농사)을 치는 것을 생각하자꾸나.

한 집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인색하게 하라?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서로 협력하니),

밭 갈고 논 갈아서 벼를 심어 던져 두고,

날이 좋은 호미로 김매기를 하자꾸나.

산에 있는 밭도 잡초가 우거지고 무논에도 풀이 무성하다.

삿갓을 말뚝에 씌워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벼 곁에 세워라.

칠월 칠석에 호미 씻고 기름을 다 맨 후에,

새끼는 누가 잘 꼬며, 섬은 누가 엮겠는가?

너희들의 재주를 헤아려 서로 서로 말아라.

추수를 한 후에는 집 짓는 일을 아니하라?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웁은 네가 물어라(만들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이 생각하려무나.

명석에 벼를 넣어 말린들 좋은 해를 구름이 가려

햇볕을 언제 보겠느냐?

방아를 못 찜는데 거칠고도 거친 올벼가,

옥같이 흰 쌀이 될 줄을 누가 알아 보겠는가?

<머슴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당부>

너희니 데리고 새 소리 사자 하니,

엇그지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디,

너희니 귀는 업서 저런 줄 모르관디,

화살을 전혀 언고 옷 밥만 닷토는디.

너희니 다리고 팁는가 주리는가.

粥早飯(죽조반) 아침 저녁 더하다 먹엇거든,

은혜란 싱각 아녀 제 일만 하려 하니,

헐 헐는 새 들이리 어니 제 어더 이서,

집 일을 맛치고 시름을 니즈려노.

너희 일 이드라 하며서 솻 헐 소리 다 포래라.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 살고자 하니,

엇그제 왔던 도적이 멀리 달아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귀와 눈이 없어서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방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옷과 밥만 가지고 다투느냐

너희들을 데리고 행여 추운가 굶주리는가 염려하며,

죽조반 아침 저녁을 다 해다가 먹었는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에 얻어서,

집안 일을 맡기고 걱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너희 일을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았도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 [이육 - 어부]

작품 해설 : 이 작품에서는 작가는 물 속 물고기의 세계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음. 즉 한 나라의 [군주 - 신하 - 아전 - 백성들]의 관계를 [용 - 고래 등의 큰 물고기 - 메기 등의 중간 물고기 - 작은 물고기]에 비유하여 올바른 국가 경영의 도를 밝히고 있음. 작가는 이 글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강자, 즉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징계해야 백성이 살고, 그래야 군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네요.

39번 : ①

->(가)에서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 -> 가슴이 금죽하여 풀덕 뛰여 대낮다가 두엄 아래 잤바지거고]라는 부분에서, (나)에서는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 흘깃 할깃 하느냐 /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꼬겠도]라는 부분에서, (다)에서는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 슬프다~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 어찌 알겠는가?]부분에서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각각 [두터비, 고공, 큰 물고기]를 비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②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모두 없네요.

③

->세 작품 모두 풍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포인트는 [고사를 활용하여]가 되겠네요. 고사는 세 작품 모두 없어요.

④

->(나)와 (다)에만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가)에서는 딱히 부정적인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두꺼비가 맴을 봐서 뛰어내렸지만, 딱히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는 더욱 아니죠.

⑤

->(가)에만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네요. 두꺼비가 맴보고 뛰어내려서 자빠지는 장면을 통해서 두꺼비라는 대상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해학적이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 해학은 풍자와 함께 주어진 사실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지 않고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서 표현하여 표현하려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풍자가 비판적 인물을 공격함으로써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을 밝히며 읽는 이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해학은 그런 비판적 인물에게 공격받는 대상에 대한 동정으로 읽는 이에게 그런 상황을 공감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번 : ④

->시어의 의미는 표면상의 이해만 하면 됩니다. [용이 나라를 경영함에 물이 마르면 내려주는 것 -> 비]입니다. 즉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높은 경영자가 그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려주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물고기]라는 대상을 위해 베풀어주는 은혜라고 볼 수도 있죠. 따라서 답은 [죽조반]이 되겠네요. (나)에서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라는 발문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네요. 뭔가 주인이 고공들에게 주는 혜택, 은혜라고 볼 수 있잖아요.

①

->고공에게 주인이 시키는 일

②

->[거친 울벼 -> 백미]이므로 뭔가 화자가 기대하는 바람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③

->주인이 고공들과 하려는 일 정도겠죠. 작품 해설과 연관지으면 국가 경영 정도가 되겠네요.

⑤

->화자의 시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졸라 너네 때문에 내가 새끼 다 꿈 사남'이니깐.

41번 : ⑤

->[두터비 파리를 물고 -> 두터비가 파리 보다 썸], [것년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죽하여 -> 두터비는 백송골보면 무서움]만 알아도 문제 풀리죠. 즉 [파리<두터비<술개]의 관계를 찾으면 되네요. 답은 ⑤ 이네요. [술개 ->씩은 쥐 보고 빙빙 돌고 가지 않음 -> 쥐 먹으라고 함], [만일에 봉황을 만나면 웃음거리가 될가 하노라 -> 술개 까불다가 봉황만나면 웃음거리 됨] 이므로 [쥐<술개<봉황]이므로 적절하네요.

42번 : ②

->해당 <보기> 읽고 문제 풀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쉬워요. [나가 고공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오답인 발문에 해당하네요. 작품에서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말아 하라 / 음은 네 물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집착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등에서 '나'는 '고공'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나요. 다만 고공들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겠죠. 따라서 반대로 오답인 발문을 구성한 선지네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①,⑤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 + [화살을 제쳐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를 통해 충분히 추론 가능해요.

③

->[옛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 [옛그제 윗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 화살을 제쳐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를 통해 추론 가능하네요.

④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 칠석에 호미 씻고 ~ 누가 워으랴 / 너희 재주 헤아려~ 집 짓기를 아니하라~ /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다투느냐 등] +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에서 화자는 집안 일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이 충분히 드러나고 집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네요. 따라서 적절합니다.

43번 : 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 창고를 열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 오답인 발문이네요. (다)에서 4문단 [그러므로 용의 도란 그들에게 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를 통해서 오답인 걸 알 수 있네요. 이 부분으로 오답 발문 만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①

->2문단 [이 때문에 용이 ~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 은혜다 ->임금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기는 함]이므로 적절하네요.

②,③

->3문단의 내용을 보면 맞다고 알 수 있겠네요.

④

->4문단 [아아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 작은 물고기 없으면 큰 물고기랑, 용은 으스댈 수도 군주 노릇할 수도 없음 -> 백성이 있어야 신하도 있고, 왕도 있는 거임;;]이므로 적절하네요.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18번]

(가) [김소월 - 길]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목적지를 잃고 방랑하는 나그네의 비애를 자문자답 형식의 대화체를 빌려 표현하고 있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서글픈 정한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삶의 근원적 애수를 그린 것일 수도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킨다면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비애를 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장담컨대 여러분은 수험장에서 처음보는 시를 이렇게 해설하지 못 함. 그러니까 분석할 때는 작품 해설을 참고하되 문제 풀 때는 “제시된 것만 보고 풀 수 있다”라는 태도로 제시된 작품으로만 선지를 판별하는 연습하세요.

(나) [백석 - 적막강산]

작품 해설 : 이 시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의 기본적인 문장을 유지하면서도 각 연에서 이 문장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운율을 형성한다네요. 그렇다네요. 기본 문장에 다른 형태가 부연되어 시적 상황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라 화자의 상황 역시 구체화되고 있음. 화자는 적막강산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는데, 화자의 답답함은 시대적 현실을 생각한다면 일제 강점기 하에서 느끼는 답답함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걸 <보기>가 있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뇌내망상으로 이렇게 감상하면 안 되어요.

(다) [이신의 - 단가 육장]

작품 해설 :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런 생활을 담아낸 6수의 연시조로 광화군 때 작가가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 회령과 흥양으로 유배되어 5년간의 유배 생활을 할 때의 심태가 잘 드러남. 특히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음. 주제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효제충신의 마음으로 유교적 가치관이 잘 드러나네요.

<현대어 번역>

<제1장>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을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 외에 해야 할 일이 또 있는가 (없음~ 효제 충신이 대장부가 해야 할 일 중에 짱짱맨임)

아아, 인간의 도리로 해울(할) 일이 다만 이걸가 하노라(효제 충신이 짱짱임)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제2장>

남산에 많던 소나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난(=임진왜란) 후 큰 도끼와 작은 도끼가 그다지도 날랴까
두어라 비와 이슬(=임금의 은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남산에 있다가 베어진 소나무는 조정에서 쫓겨나 유배 간 화자와 동료들을 의미하고, 우로는 베인 솔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소재로 임금의 은혜 정도로 볼 수 있음. 굽신 굽신쟁

<3장>

창 밖에 가랑비 오고 들 가에 제비 나니
귀양살이 하는 사람(=화자)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귀양 살이 하면서 슬픔. 날아다니는 제비 보니까 더 한숨 나옴. 힝

<4장>

적객에 벗이 벗어 들보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아아 내가 풀어낸 시름은 너보다 많다. (로만 = 보다 /하다 = 많다)

<5장>

인간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명월밖에 없음)
천 리를 멀다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따라오니
아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제6장>

눈을 비추는 달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눈에 섞인) 여원 속에(시든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아아, 나비가 이 향기 알면 애 꿀일까 하노라

->눈 속에서 여원 꽃은 화자를 상징함, 나비는 임금을 상징함. 즉 매화는 여원 모습으로 꽃을 피운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유배 생호라 중 작가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고, 향기가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지조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13번 : ①

->오 거의 맞는 선지. (가)에서는 [기러기 -> 나는 기러기와 달리 길이 있어도 갈 곳이 없음], (나)에서는 [산과 벌은 들썩대기도 하고, 산 소리와 벌 소리가 있음 -> 근데 화자는 이러한 배경과 대조되어 적막강산에서 나 홀로 있다고 함], (다)에서는 [소나무, 제비, 명월, 매화 -> 소나무 다 잘림, 제비보다 회포가 많고 제비보고 시름이 깊어짐, 화자의 벗은 명월임, 매화 지조 개 째 -> 그게 나임]과 같이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네요.

②

->시각의 대립이란 결국 [관점의 차이]인데 세작 품 보다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 화자의 시각만 드러나네요.

③

->(나)에서는 [들썩]과 같은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생동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가)와 (다)에는 없네요. 역동적 이미지란 [힘차게 움직이는 이미지]정도인데 나머지는 딱히 없음. 그냥 움직인다고 역동적 이미지는 아니네요.

④

->회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다)에서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 후 부근이 그다지도 날랴시고]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⑤

->오 개소리. 명암을 줄라 함축적으로 봐서(사실 만약 정답으로 나오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제시해 줌) 화자의 [긍정<->부정]을 의미하는 명암으로도 보더라도 (다)밖에 해당이 안 됨. 따라서 도저히 답이 될 수 없는 개소리. 항상 명확한 근거만 잡으면 고민하지 말고 넘어가요. 굳이 시험장에서 일일이 분석하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14번 : ④

->그냥 같은 말 가져다가 넣은 선지들이네요. 너무 쉬워요. 완벽하게 함축적인 의미를 이래서 감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요. 필요하다면 <보기>주고 그거 보고 발문 판단만 해주면 되어요. [A ->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 심화]에서 A를 찾으면 되네요. ④이네요. [기러기와 떨어져 있어서 -> 외로움]이라면 기러기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지문에서 [기러기]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등장했어요. [여보소 공중에 저 기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 기러기는 잘 감! <-> [여보소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화자는 길이 있어도 갈 길이 없음]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즉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로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겠네요.

①,②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 "또"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오늘 말고도 항상 어디로 돌아다니는 존재라는 것 파악 가능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 어디로 가야 하는 데 오라는 곳이 없음 ->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하는 존재이면서 외로움]라고 충분히 추론 가능하네요.

③,⑤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를 보면 왜 인지는 모르지만 화자는 집이 있고, 가는 길도 있는데 갈 수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외롭겠죠. 따라서 적절한 추론이네요.

15번 : ④

->[상반된 -> 동일한]으로 바뀌야겠네요. 너무 빈출되는 패턴이네요. 이제 슬슬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해요.

①

->"선생님 저는 배추가 언제 익는지 모르는데요" 몰라도 되어요. 그냥 주석 준 거 보고 "배추가 익는 계절인가 보네" 라고 생각했으면 되어요. 가을 정도가 되겠죠. 배추가 아무 때나 익을 건 아니니까. 괜히 주석을 준 게 아니라 이거죠.

②,③

->1행에서 [~소리]는 청각적으로 제시한 게 맞네요. 그리고 이러한 소리를 2,3연에서 각각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으니까 구체화시킨 것 맞다고 보기에 충분해요.

⑤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남 -> 근대 나는 적막강산에 있음]이므로 맞네요. [실컷 산이랑 벌에 가면 즐라 소리난다]라고 해놓고 [자신은 적막강산]에 있다고 한 건 대비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겠죠.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앞 연에서 구구절절 설명하던 [산 소리/ 벌 소리]를 마지막 연에서 서술하고,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라고 했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체험의 의미를 집약]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해요.

16번 : ⑤

->[화자의 의지]가 오답인 발문입니다. (가)에서는 [공중에 기러기님 공중에는 길이 있어서 잘 감? -> 나는 길이 있는데도 못 감]인데 [의지]가 될 수는 없겠죠. [어디로 갈까? -> 나는 못 가오]와 같이 자신이 갈 곳이 없음을 스스로 묻고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드러낸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함. (나)에서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은 맞죠. 거의 [~소리, 홀로]를 사용하고 마지막 연에서만 [~노라]라고 했으니까요. 다만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은 아니죠.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듯.

①

->이건 해당 시를 떠나서 "시"라는 장르에 당연히 맞는 소리임. ○○. [시의 제재]는 [시를 쓸 때 재료가 되는 소재]인데, (가)에서는 [길]에 대해서 주구장창 썼으니까 맞죠. [시의 주제]는 [예술 작품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 결국 (나)에서의 핵심은 [산 소리, 벌 소리]가 아니라, [나 적막강산에 있음]이니까 적절하네요.

+ 시에서는 제목에 [제재 또는 주제]가 담길 수밖에 없어요. 즉 시상이 집약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문학에서 시를 읽기 전에는 <보기> 확인하고, <제목>확인하고 방향을 잡고 들어가세요.

②

->맞아요.

③

->(가)에서 [정주 곽산 = 집 -> 그럼 당연히 구체적으로 경험한 공간], (나)에서는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 길을 하루가 걸려서 왔나보다]이므로 적절하네요.

④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표면적인 의미만 보세요. (가)에서 [갈린 길 -> 공간적 의미], (나)에서는 [하룻길 -> 하루동안 걸린 길 -> 시 공간]이므로 적절해요.)

17번 : ②

->핵심은 [귀양살이 단기간 안 끝나겠네 ;;; 라는 = 우려] + [그래도 복귀 가능? 가능 ㄴ = 기대감 뽐뽐]이 모두 드러나야 되어요. 그냥 굽지 말고, 간단하게 조건을 항상 정리하세요. 보면 ②이네요. [두어라 우로 깊으면 -> 나눠라 비와 이슬이 깊으면 -> ~하면 이라고 했으므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네 -> 당장은 아니겠구나 -> 우려] + [다시 볼까 하노라 -> 보긴 보겠지 ->기대감]이므로 적절하네요. 나머지는 현대어 번역 보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모르면 질문주세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18번 : ③

-> 이거 ② 고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왜 골랐니?" -> "그냥 이게 맞는 거 같던데"] ㅇㅇ... 조건 제발 잘 확인하시고 근거 잡고 골라야 되어요. (나)의 ㉠은 [별로 오면 별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이네요. 즉 [화자가 있는 배경 공간 <-> 화자]인데 대상과의 관계를 찾으면 [배경 <-> 화자] 또는 [대조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답은 ③ 이네요.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한숨 겨워함 -> 왜? 그렇지 화자는 귀양살이 하는데, 제비는 비비, 즉 날아다니니까 -> 괜히 "적객=귀양살이" 라는 주석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선지 골라내라고 준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②

->이거 고른 친구들의 뇌내망상을 보면 [나 홀로 = 뭔가 외로운 거 -> 남산에 많던 솔 없음 -> 뭔가 외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고르시더라고요. 진짜 창의력 대장들. 핵심은 [대상과 화자와의 관계]가 유사한 것을 고르는 거지, [화자의 처지]를 고르는 문제도 아니에요. [대조적인 관계]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남산의 소나무와 화자]는 대조적인 관계가 아니라, 화자와 그의 동료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확실한 오답이에요.

나머지 선지는 헛갈리지 않았을 거라 믿어요. 혹시 헛갈리셨다면 편하게 질문주세요. 카톡OK. 문자OK. 상담실OK.

[2011학년도 수능 27~31번]

(가) [정극인 - 상춘곡]

너무 많이 나오는 걸요. 번역 앞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작품 해설 : 작가가 관직으로부터 물러나 고향의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 이 작품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된 삶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안분지족하는 자연친화적인 삶이 드러나요. 봄의 완상도.)

(나) [김광욱 - 율리유곡]

작품 해설 : 작자가 만년에 고향에 돌아가 지은 연시조. 세상의 부귀와 공명을 잊고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내용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화자가 소박하지만 자연을 벗하며 살아가는 멋을 노래하며, 현실 정치에 대해 풍자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세속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전원생활의 여유와 풍류정도 :)

[전문 해석] -> 지문 해당 부분 빨간색 표시 참조

1)

도연명(陶淵明) 주근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단 말이
밤마을 네 일흔이 마초아 가들시고,
도라와 수줄전원(守拙田園)이야 기오 내오 다르랴

도연명이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타났다는 말이
밤마을의 옛 이름과 더불어 공교롭게도 같구나.
돌아와서 전원에서 살고자 하는 우직한 태도와 본성이야말로 그와 내가 다르겠는가.

-> 작자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면서 지은 '율리유곡'의 첫 연이다. 옛날 도연명이 살던 마을 이름도 율리였는데, 자신을 '귀거래사'를 지은 도연명이라 다를 바가 없다고 노래함.

2)

공명(功名)도 잊었노라 부귀(富貴)도 잊었노라
세상 번우(世上 煩憂)한 일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내마져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명도 부귀도 잊어버렸다.
세상의 번거롭고 근심스러운 일도 모두 잊어버렸다.
(마침내) 나조차(나마저) 잊어버렸으니 남이 나를 아니 잊을 수 있겠는가.

-> 속세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삶을 노래. 속세를 잊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심경을 노래함. 점층법과 반복법을 써서 세상과 인연을 끊으려는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어 작가의 초월, 탈속적인 모습이 드러나네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초가 지붕의 처마에 긴 해가 할이 아주 없어
방석 위에서 낮잠을 자고 해가 떨어져서 잠을 깨니
문밖에서 그 누가 하품하며 뉘시가라 권하니

->낮잠자고 뉘시하는 한가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도 대학가면 할 수 있음.

8)

삼공(三公)이 귀(貴)타한들 이 강산(江山)과 바꿀소나
편주(扁舟)에 달을 싣고 뉘대를 훌던질 제
이 몸이 이 청흥(淸興)가지고 만호우(萬戶侯)인들 부러랴

고관대작(지위가 높고 훌륭한 벼슬 or 또는 그 지위의 사람)가 같은 높은 벼슬이 귀하다고 한들 어찌 이 자연과 바꿀 수 있겠는가?
조각배에 달빛을 가득 싣고 뉘싯대를 던질 때에
내가 즐기는 이 자연의 흥취를 가지고 만호의 식읍(食邑)을 갖는 제후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겠는가.

->자연을 즐기는 천석고황에 빠진 사람들은 삼공불환차강산(三公不換此江山)이라는 말을 즐겨 썼대요. 나도 여기까지 자세히는 몰라요. 나름 한자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ㄱㄷ 세상의 고관대작인 삼정승의 부귀영화라도 이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9)

추강(秋江) 밝은 달에 일엽주(一葉舟) 혼자 저어
뉘대를 떨쳐 드니 잠든 백구(白鷗) 다 날거다
어디서 일성 어적은 조차 흥을 돕나니

가을 강물에 달빛이 밝은데, 조각배를 홀로 저어 나가면서
뉘싯대를 흔들어 올리니 잠자던 갈매기들이 모두 놀라 날겠구나
어디서 들려오는 어부의 피리 소리가 곁들여 이 흥취를 돋우어 주는구나.

->달 아래 배를 타고 자연과 벗 삼으며 뉘시를 즐기는 한가로운 생활을 노래하고 있어요. 크 경치 개 지릴 듯

10)

헛글고 쉬은 문서(文書) 다 주어 후리치고
필마 추풍(匹馬 秋風)에 채를 쳐 돌아오니
매인 새 놓이다 이대도록 시원하랴

흩어져 어지럽던 문서 다 던져 버리고
한 마리의 말을 타고 재촉하여 돌아오니
새장에 갇힌 새가 놓인다고 이처럼 시원하랴

->세속의 벼슬에 집착하던 일 +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 증장에 담겨 있어요. 이는 화자가 관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11)

대막대 너를 보니 유신(有信)하고 반갑고야
나니 아이적에 너를 타고 다니더니
이제란 창(窓)뒤에 섰다가 날 뒤세고 다녀랴

대나무 막대기(아이들 적에는 죽마가 되고, 늙어서는 대지팡이가 되는 막대기) 너를 보니 신의가 있고 믿음직하며 반갑구나.
내가 아이 적에는 너를 타고 다녔더니
이제는 창 뒤에 서 있다가 날 뒤에 세우고 다니는구나.

->작가의 호가 "죽소"인 것으로 미루어서도 그는 대를 몹시 좋아한 것으로 추정된다네요. 대를 지사의 절개에 비유하였다. 결이 곧아서 쪽쪽 곧게 쪼개져 나가는 것에서 '대쪽 같은 성품'이라는 말도 생긴 것이라네요. 신기하당. 신기하죠. 잡지식 줄라 생김, 그 대를 어린 시절에는 대말을 만들어
Orbiclass 후국일 김민수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말놀이를 하고, 그것을 죽마고우라고 하여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만들어 짚고 의지하고 다닌다. 죽장망해로 산천을 유람할 때도 대는 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는 인생의 반려가 된다네요.

12)

세상(世上) 사람들이 다 쓸어 어리더라
죽을 줄 알면서 놀줄란 모로더라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장일취(長日醉)로 노느라

세상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구나.
죽을 줄은 알면서 놀 줄은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온종일 취하고 노느니라.

->속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노는 즐거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허무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계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속세가 좋아요 ㅋㅋㅋ

13)

사람이 죽은 후(後)에 다시 산 이 보았는다
왔노라 한 이 없고 돌아와 날 본 이 없다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살았을 제 노노라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산 사람을 보았는가.
왔노라 한 사람도 없고 돌아와 날 본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살아있을 때 노느니라.

->짧은 삶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는 말이네요. 여러분도 짧은 삶에서 즐거움을 즐기세요. 수능 끝나고 ㅈㅈ

14)

황하수(黃河水) 맑다더니 성인(聖人)이 나시도다
초야 군현(草野 君賢)이 다 일어나단 말가
어즈버 청산풍월(江山風月)을 누를 주고 니거니

황하수 맑다더니 성인이 나셨도다.
초야군현이 다 일어났단 말인가.
어와 강산풍월을 누구를 주고 가는가.

->청산풍월은 임자가 없으니 그것을 즐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청산풍월을 즐기세요. 수능 끝나고, ㅈㅈ

15)

세(細)버들 가지꺼어 낚은 고기 꿰어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단교(斷橋)로 건너가니
그 골에 행화(杏花) 저 쌓이니 갈 곳 몰라 하노라

가는 버들의 가지를 꺾어 낚은 고기를 꿰어 들고
술집을 찾으려고 헐어진 다리를 건너가니
골짜기에 살구꽃이 떨어져 쌓이니 갈 길을 몰라 하노라.

->잡은 물꼬기를 들고 술집을 찾아가던 화자가 골짜기에 행화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발길을 옮기지 못하는 모습이래요. 자연충이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16)

동풍(東風)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사면 청산(四面 靑山)이 예 얼굴 나노매라
귀밀에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동녘 바람이 잠시 불어 쌓인 눈을 다 녹이니
사방의 푸른 산이 옛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귀밀에 해묵은 흰머리 털은 녹을 줄을 모르는구나.

->자연은 다시 청산이 되고 돌아옴. 근데 슬프게도 인생은 한번 흘러가면 젊음을 되찾을 수 없음. 크... 귀밀에 여러 해에 묵은 서리라는 것은 진짜로 사람 귀밀에 서리 가능? 불가능. 흰머리 의미하겠죠. 여기서 많이들 틀릴 듯.

17)

최행수(崔行首) 썩달임하세 조동갑(趙同甲) 꽃달임하세
닭찜 개찜 오려 점심(點心) 날 시키소
매일(每日)에 이렇 성굴면 무슨 시름있으랴

최행수여, 썩 끓여 썩달임하세, 조동갑네야, 꽃 지저 꽃달임 하세나.
닭찜도 하고 개찜도 하세나. 올벼쌀로 점심 짓는 일은 나를 시켜주시게나.
날마다 오늘 이 모양으로 지낸다면야 벼슬하는 일이 무엇이 부럽겠느냐.

->매일을 즐기는 삶을 살면 아무 것도 안 부러움 ㅋ

27번 : ①

->맞네요. 너무 맞네요. (가) [흥이야 다를쏘냐], (나) [~부러우랴, 시원하랴]에서 확인해주세요.

②

->(가)에는 색채가 나타남. 대비도 나타남. [흥진=속세=붉은 먼지=붉은 색]<->[녹양방초 세우 중에 푸르도다 = 푸름 = 자연]○○○. 근데 (다)에서는 [색채 대비 -> 표현 효과 증가]가 없음.

③

->감각적 이미지는 둘 다 맞음. 모든 시에 다 맞음. 시각적 이미지가 베이스로 깔리니까. 확인할 것은 [감각적 이미지 -> 계절감]인데 (나)에만 맞음. [동풍 불어 적설을 다 녹이니 -> 동풍 불어 쌓인 눈을 다 녹임 -> 사면 청산 옛 모습 나노매라 -> 봄이 옴 푸른 산의 이미지]이므로 맞죠. 근데 (다)에는 [계절감]이 없네요. ○○○

④

->(나)에서는 2연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 하느냐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에서 드러남. (가)에는 없고, (다)는 풍자로 보기는 애매함. 풍자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우회적으로 슬쩍 돌려가는 건데, (다)에서는 몸 쪽에 꽂찬 직구를 던지고 있으니. 포인트는 (가)로 잡아주시면 돼요. 발문도 (가)~(다)로 되어있는 게 그것 때문이구요.

⑤

->(가)와 (나)에만 해당. (가)에서는 [옛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 ~~~하다]에서 나타나고, (나)에서는 [동풍이 건 듯 불어 적설을 다 녹이니 -> 사면 청산이 옛 모습나노매라]와 같이 [겨울 -> 봄]으로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를 바탕으로 자연의 속성을 드러냄. (다)는 없음

28번 : ③

->너무 쉽네요. 고기를 엿보는 건 소유하려는 태도겠네요. 고기 잡아서 먹어야지 남남이니까. 나머지는 적절해요

29번 : ④

->요기서 아마 많이 틀렸을 듯. [귀 밀에 해묵은 서리] 때문에. 저는 수험생 시절에 이거 보면서 소거법으로 나머지 선지 지우고 ④이 맞는 거 같은데 하면서 고민하다가 [적설은 다 녹음 ->근데 귀 밀에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 모른다 -> 귀 밀에 서리? ->ㅅㅂ 뭘 말이야? -> 자연은 옛 모습이 돌아오는데 귀 밀의 서리는 녹지 않는다... 왜 서글픈이지... 아 자연과 사람의 모습의 대비구나 -> 자연은 계절에 따라 순환하며 각 모습이 돌아오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구나 ○○ 그럼 귀 밀에 서리는 나이 먹은 거, 흰머리 정도 되겠네]라고 생각함. 자연의 섭리와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함은 이전에도 몇 번 나왔던 소재라 ○○○. "귀 밀에 해묵은 서리가 유한함이나"를 기억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 -> 인간의 유한함과 대비]라는 제재를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해먹지. 근데 여러분은 [서리 = 흰머리] 이거 외우고 있더라구요. 제발. 효율적으로 공부합시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①

->학생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민하다가 ①선지 다시 보고 ④선지에 대해 확신함. [인간의 유한함? -> 아 서리!?]이런 식으로. 발문에서 상당히 얻을 게 많아요. 근데 [A]는 아니죠. 그냥 자연 줄라 좋음 이거네요.

②

->둘 다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③

->둘 다 아닌 것 같더라고 생각하다가 [교태]라는 것은 [아양 부리다, 애교 부리다]정도인데... 새가 [교태를 부린다]가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의인화로 봐도 될 거 같기도 하네요. 포인트는 [C]로 잡기. 그래서 선지도 "[A]와 달리 [C]는~" 과 같이 명시적으로 거꾸로 구성한 듯.

⑤

->시선 이동 X, [C]에서 귀밀의 해묵은 서리가 시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보통 근경 원경의 이동은 명시적으로 주어집니다. [A]는 명확하게 아니니까 포인트는 [A]. 또한 [B]도 명확하게 아닌 것 같음 전. 또한 [C]는 그러한 시선 이동을 통해서 봄을 묘사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행은 봄을 묘사한다기 보다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내니까 확실히 아닌 듯.

30번 : ①

->오 너무 쉽네요. 일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멍멍멍이죠.

31번 : ②

->거의 비문학. 3문단 [천하의 명소가 어디 한두 군데에 불과하라? -> 비교 ~] + [또한 그 고정된 견해와 평가가 있겠는가 -> 발걸음 옮길 때마다 풍경이 바뀔, 지경의 변화에 따라 느낌도 달라짐~] + [또 같은 장소라 해도 경관이 차이가 나고,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호함~]에 해당하는 게 ②이니까 답. ⑥와 같은 태도는 앞에 서술한 것에서 비판하는 태도가 되겠죠. [소유하고자 하고, 자연 경관을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본 게 짱짱맨이라고 하고, 고정된 견해와 평가를 하는 태도]죠. 나머지가 여기에 속하네요.

①

->소유. 시스타 소유. 책 덮지마요 농담임. 봐주세요.

③

->[강릉 경포대의 진면목 = 관동별곡 짱짱맨 -> 고정된 견해]

④

->[설악산 -> 단풍 짱짱맨 -> 비교, 고정된 견해]

⑤

->[추천하는 명산 -> 응 평가 ~]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31~35번]

(가) [관동록]

작품해설 : 관동록은 작가가 금강산을 다녀온 후 그 감상을 기록한 기행문입니다. 기행문의 특징인 여정과,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으며, 특히 금강산의 영랑재에서 바라본 다양한 형상의 봉우리와 바위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비유가 생생하게 드러남요. 또한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풍경들, 그리고 비로봉에서 바라본 풍경 및 그로인한 생각, 심정 등이 잘 드러나네요. 금강산 봉우리들의 풍경에 대한 예찬이 주제가 되겠네요.

(나) [정철-관동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임. 다들 아실 듯.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금강산의 동해 일대의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죠.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 있으며,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작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당연한 말. 제시된 부분은 [금강산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다양한 봉우리와 풍경]들이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네요. 가능하면 전문 공부하세요. 상당히 지엽적인 것은 묻는 편이기도 하고, 배경지식 있으면 개 쉬움. 교과서에도 개 많이 나오잖아음. 빈출되는 포인트들만 좀 잡아놓으셔도 당황하는 일은 없겠네요. 다만 15학년도에도 나와서 18학년도에 또 나올지는 의문. 과연 평가원님들!?

[진혈대(전망대)]

소향로봉과 대향로봉을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뒤 진혈대에 다시 올라 앉으니,

여산같이 아름다운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야 다 보인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아아,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봉우리들이 하늘로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거나,
부용을 꽃았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동해를 박차는 듯, 북극성을 괴고 있는 듯하구나.
높기도 하구나 망고대여, 외롭기도 하구나 혈망봉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아뢰려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아, 너(망고대, 혈망봉)로구나. 너 같은 높은 기상을 지닌 것이 또 있겠는가?

[개심대에서 중향성 조망함]

개심대에 다시 놀라 중향성을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똑똑히 헤아리니,
봉마다 뗏혀 있고, 산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나 말 것이지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흠어 내어 뛰어난 인재를 만들고 싶구나.
모습(모양)도 그지없고 형세(기세)도 다양하다.
천지가 생겨날 때에(만 이천 봉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제 와서 보게 되니 조물주의 깊은 뜻이 담겨 있구나.

[개심대에서 비로봉 바라보며 공자의 높은 경지 흠모하는 모습]

금강산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 본 사람이 누구이신가?
(공자님은 동산에 올라 노나라가 작음을 알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했으니.)
동산과 태산이 어느 것이 높던고?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물며 넓거나 넓은 천하를 (공자님은) 어찌하여 작다고 했는가?
아! 공자와 같은 그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이상할까.

(다) [안민영]

이 작품은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은 시조래요. 끝. 고어도 딱히 어려운 것 없어서 이정도로 보고 해설로 갈게요.

31번 : ①

->[감각적인 언어로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인데, 틀리는 게 더 어려울 듯ㅋㅋㅋ. 누가봐도 “제가 정답인데요 웬만하면 골라주세요”하고 있는 선지네요. 감각적인 언어란 말은 말 그대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사용한 언어가 되겠는데, 시각적 이미지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에는. 따라서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나 기행문에서는 뭐.. (가)에서는 특히 [천봉만학의 형상을 다양한 비유 -> 시각화] + [해송과 측백나무 -> 짙고 열은 푸른 빛 ->시각화]와 같이 잘 드러나네요. (나)에서는 [~인 듯]이라는 표현 대부분이 시각화를 하고 있다보 보시면 되겠네요.

②

->두 작품 모두 여행 도중에 감상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신한 선지네요. 기행문에 해당하는 선지인데, 기행문은 보통 기행을 하고 와서 글을 쓰지만, 마치 기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따라서 [여행 도중의 감상]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시된 두 작품에서 마치 지금 감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 ~인 듯, ~하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걸 통해 알 수 있죠.

③

->(가)에만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가)의 마지막에서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와 같은 작가의 의문을 통해 금강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에는 없어요.

④

->(나)에서는 [~듯, ~나, ~가, ~하]와 같은 의문형 표현이 주를 이루네요. 따라서 이런 표현은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 없는 명시적 근거가 되겠네요. (다)에서는 [~로다, ~어라, ~노라]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네요.

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나)는 몰라도, (다)는 3행 밖에 안 되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묘사할 수가 없겠네요. (다)에는 [금강산]에 대한 특징이 [눈 아니면 옥 -> 서부진 화부득 같다]와 같이 하나의 관점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에서 고민하지 말고, (다)를 명시적 오답으로 보고 넘어가는 게 포인트.

32번 : ④

->사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음. 원래 보통 해설지는 아마 이렇게 해설할 거 같네요. [㉞의 비유 = 해송과 측백나무가 펼쳐진 위로 걸어가며 느낀 것을 표현], [나머지 = 금강산의 천봉만학의 다양한 형상들이 펼쳐진 풍경을 비유]이므로 ④이 답이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㉞이 답이 될 수 밖에 없죠. ㉠~㉞은 [영랑재 -> 천봉만학의 기괴한 형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㉞은 [영랑재에서 절정까지 가는 길에 -> 해송과 측백나무 위로 "사람"이 걸어가-> 따라서 대상은 해송과 측백나무]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 선지를 모르더라도 ④임을 아셔야 해요. 즉 [천봉만학의 풍경 <-> 해송과 측백나무]만으로도 답을 고를 수가 있었네요.

33번 : ③

->요거 진짜 관동별곡에서 항상 나오는 포인트. [녀산 = 중국의 산 = 화자가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의 풍경을 빗대어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라는 걸로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외워주세요. 별로 배경지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알면 개이득이니까. 지문만 보면 [녀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보는다 -> 녀산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인다 -> 녀산과 여기인 진혈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은 다른 장소 -> 녀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님, 보고 있는 것은 금강산 ㅇㅇ, 금강산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33번 문제가 금강산 답사를 계획하는 건데음 -> ③오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될 것 같으면 외우세요. 적어도 33번 문제를 제대로 읽었으면 (가)~(다)가 금강산과 관련이 있는 기행문이거나 라는 생각이 드셨어야겠네요.

①
->(가)에서 [주요 형상을 조금 들어 설명하면 이렇하다~이하 생략]에서 확인 가능.

②
->(가)에서 [영랑재에서 절정까지~]있는 문단에서 확인 가능.

④
->(나)에서 [가 | 심드 | 고타 올라 등향성 바라보며 만 이천 봉을 넉넉히 허여하니 봉마다 뒷cu 잇고 곳마다 서린 괴운]에서 확인 가능해요. 본문 읽으면서 모르더라도 선지 읽으면서 구체화해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맞겠네"라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어요. 제발 한 번에 이렇게 감상하려고 하지마요.

⑤
->(다)에서 [혈성루 올라가니 천상인 되었어라]와 같이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34번 : ③

->누가 봐도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를 자연 속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이상할 거 같아요. 혹시나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까봐 보면 [A]와 [B] 모두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이 적절한 건데, 선지 비교만 해봐도 ③ 혼자 뭔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다른 선지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①
->[물을 보면 반드시 원류까지 궁구해야 하고, 산에 오르면 반드시 가장 높이 올라야 한다고 했으니]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뭔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라는 말이니깐 ① 선지가 맞다고 판별하기에는 충분하네요. [근원 = 원류 = 가장 높이].

②,⑤
->요 포인트도 정말 지겹게 나와요.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하는 부분이죠. 만약 몰랐다면 [비로봉 상상두의 올라 본이 그 누구신가 -> 동산 태산 어느 것이 높은가 ->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 넓고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작다고 했던 말인가 -> 아아 저 지위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 오르지 못 하니 내려감이 이상할까]를 통해서 판별했으면 되네요. [비로봉을 오르는 행위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누군가 노국이 좁다고 말했던 것과, 그것의 지위를 예찬]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네요. 근데 웬만하면 외우세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아마 뇌내망상 때문에 오답 고를 것 같아서 ㅇㅇ. ⑤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A]에서는 [비로봉에 올랐다. 사방을 빙 돌며 둘러보니, 넓고도 아스라하여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 산천의 구분이 경계를 하나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라는 부분에서 드러나네요.

④
->[A]에서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마치 학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듯 함 ->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았다 -> 즐라 만족]이고, [B]에서는 [아아 저 지위를 어찌 알 것인가 -> 오르지 못 할거 같아 내려감이 이상할까 -> 이상하지 않음 -> 이 정도로 만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적절하네요.

35번 : ⑤

->③고른 사람은 <보기> 발문 제대로 확인 안 하는 사람. [익숙한 간격 --> 하나 빗 = 허전함 -> 촘촘히 = 급함 -> ㉠]이까 ⑤이 답이네요. ②이 허전함, ④이 촘촘함. ㅇㅇ. 거의 같은 그림 찾기.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26번]

☐으로 처음으로 “오 까다로운 걸?”이라고 느낀 문제들. 하지만 주어진 팩트만 갖고 후드려패면 [완벽한 감상]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선지는 다 걸러낼 수 있어요. 항상 [시인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공감하고 감상하고 문제 풀어야지->망함]이에요. ○○.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시인하시면 되시구요. 수험장에서 진짜 그게 가능함? 저는 수험생 시절 작품 해설해주는 문학 강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 보는 작품을 저렇게 감상한다고? 그래야만 문제가 풀린다고 ?”라는 의문이 항상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감상할 필요가 없음. 항상 [작품에 표면적으로 제시된 팩트만 이해 -> 선지에서 제시된 감상과 구체화 + <보기> 발문에 입각한 감상]만 하면 됨.

(가) [이육사 - 소년에게]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소년의 당당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소년의 순수한 모습을 박꽃에 비유하고 있고, 당당한 소년의 모습은 큰 여울을 만들어 흘러가는 강물의 흐름과 분수 있는 풍경 속에 동상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소년의 기상은 서풍을 맞고 자연을 노래하는 모습으로, 소년의 강한 의지는 추위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하는데, 이게 수험장에서 수험생이 가능한 감상? 대다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러한 감상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 <보기>발문에 이런 내용을 줌. 그거 보시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는 “이런 감상은 지문에 이런 팩트를 보니 개소리군”이라고 판별만 하면 돼요. 마저 보면 이러한 힘이 넘치는 소년의 모습에서 시대 현실에 굴하지 않은 육사의 당당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남. 저항 시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육사의 시 중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준마를 달리고 곧은 기운을 드러내며 추위 속에서도 당당한 소년의 모습에서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신뢰하는 육사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수험장에서 수험생은 절대 못 엿봐요. 그냥 참고만 하고, 해설은 전혀 이 내용 없이 주어진 것만 갖고 풀 겁니다.

(나) [황지우 -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

작품 해설 : 이 시는 추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화자는 추위를 이겨내는 나무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겨울나무와 봄 나무의 대조적 상황으로 주제의식을 부각한데요. 이 작품을 시대 상황과 연관시켜 본다면 겨울은 나무를 억압하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이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이를 이겨내는 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감상 안 해도 돼요. 선지에 나오면 판별만 합시다.

(다) [이현보 - 어부단가]

작품 해설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부가’를 개작한 것. 자연을 벗하며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의 한가한 삶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부는 실제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진짜 어부로 보기보다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선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수에서 고기잡이 배에 누워서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선지에 나오면 발문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전문 원문 + 현대어 번역>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졌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이런 (어부생활) 속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한 척의 조그마한 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인간 세상의 일을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모르겠도다.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붉은 먼지(어수선한 세상사)는 얼마나 가리어졌는가.
강호에 달 밝으니 더욱 인간사에 욕심이 없어라.

청하(靑荷)에 바블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게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배 매야 두고
일반 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분이 아라실고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서,
갈대와 억새풀이 우거진 곳에 배를 대어 묶어 두니,
두어라, 이런 맑은 뜻으로 노는 흥을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하고 수중에 백구(白鷗)이 비(飛)이라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이 피어나고(일어나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지내리라.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關)이 천 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

서울을 돌아보니 궁궐(임금님 계신 곳)이 천 리나 떨어져 있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은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 걱정할 바가 아니로다. 세상을 구할 어진 사람이 없겠는가?

21번 : ②

->개념어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웠다고 볼 만함. 근데 명시적 오답 발문만 잡으면 쉬워요. 애매한 거에서 고민 하지 않으시면 돼요. (가)는 [큰강, 준마, 별들 춤다 얼어붙고]와 같이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네요. 다른 걸 못 잡아도 [별들 춤다 얼어붙고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에서는 확신을 하셨어야 해요. 뭔가 자연물이 별도 추워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서의 “너”에 대한 화자의 인식인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잖아요. 사실 <보기>발문 먼저 읽고, 엮어서 생각하면 더 쉬움. 항상 <보기>발문 먼저 보세요. 난해한 시 일수록 <보기>발문은 더 친절하고, 선지는 더 쉬우니까요. 왜냐. 그래야 이의제기의 위험이 없어요.

(나)에서는 [영하]의 시적 상화에서 [영상->영상]으로 밀고 올라가는 자연물인 [나무]를 통해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네요. 사실 [시적 상황]은 시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역시 시에는 드러날 수 밖에 없어요. 조금 현명하게 골랐다면 [자연물을 통해]만 확인해주었으면 됐죠.

(다)에서는 [천심 녹수, 강호, 월백, 백구 -> 어부 생애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남]이라고 볼 수 있죠.

①

->(다)에서만 확인 가능하네요. 대상과의 조화는 보통 자연 친화,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작품에 많이 나오죠. (가)와 (나)에는 없어요. 소년이 강물과 조화를 이루려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뭔가와 조화를 이루려는 삶을 살려는 것도 아니니까요.

③

->이제 이 선지를 많이 고민했을 것 같네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에 대한 발문이 오답의 근거가 됩니다. [이상세계 =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전한 세계]를 의미하는데, (가)에는 그러한 이상 세계가 드러나지 않아요. [상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일대일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 -> 평화 = 비둘기]인 것처럼. (가)에는 그러한 이상 세계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닐지에 대한 의지, 다짐 정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네요. (나)에서도 이상 세계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나무가 지향하는 것 ->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 -> 그래서 꽃 피는 것]이지만 이걸 이상 세계를 의미한다기보단, 나무의 모습을 통해, 나무의 강한 생명력 정도를 나타내는 게 맞겠죠. (다)에서는 [어부의 생애 = 자연에서의 이상적인 삶 + 흥진, 장안 = 정치적 이상]과 같은 부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네요. [이상 세계]가 참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답이 되려면 작품에서 딱 그러한 이상 세계를 찍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④

->(사물 <-> 인간]의 대비는 없어요. (나)에서는 [영하<->영상]의 대비, (다)에서는 [흥진,장안 <-> 자연]의 대비가 드러나긴 하지만, 인간과 사물의 속성의 대비라고 보기는 힘들죠.

⑤

->[구도 :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함]임요. 그냥 “구도? -> 맞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모두 드러나지 않아요.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자세는 없어요. (가)는 소년의 모습과 소년의 삶의 태도, (나)에는 나무가 뭔가 줄라 힘든 것을 극복하고 꽃피는 나무가 되는 것, (다)에서는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이 핵심이니까요. 한용운 시인의 [알 수 없어요]같은 시가 전형적인 구도적인 자세의 시예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22번 : ③

->정답이네요. 명시적 발문으로 잡으면 되어요. (가)에서는 [진준가 빛나는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 소년이 태어남 -> "맑은 냇"에 깃들여 박꽃처럼 자랐어라]에서 확인 가능해요. [박꽃 -> 맑은 냇이 깃든 것 -> 순수함]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되겠네요. 그냥 주어진 시어의 발문으로 판별만 해요. 왜 이런 선지의 발문을 만들었을까 하구요. (나)에서는 [허로 싹 내뿜 + 푸린 잎 됨 -> 마침내 꽃 피는 나무됨]이니까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선지네요.

①

->모두 오답. (가)에서는 [차디찬]이 수식하고 있는 것은 [아침 이슬]이잖아요. [차디찬 -> 아침 이슬] -> [그러한 이슬이 진주처럼 빛나는 못가] -> [그러한 못가 연꽃 하나 다복히 피고 -> 소년이 태어남]이네요. [차디찬]은 [새로운 존재 = 소년]의 탄생을 예고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탄생이 일어날 때의 배경이 되겠죠. 아침 이슬은 진주처럼 못가에서 빛나고 있죠. 따라서 [맑은 냇]과 연결되어 새로운 존재의 [맑고 순수함]을 더 부각시킨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듯 해요. 오히려 [연꽃 하나 피고 -> 소년이 태어남]이 소년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네요. (나) 역시 틀렸죠. (나)가 더 명시적 오답이네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 아니라, [기존 존재의 변화]잖아요. 그리고 영향 13도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고한다기보다는 기존 존재가 처한 상황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할 듯.

②

->[숭고함 : 뜻이 높고 고상하다]라는 의미예요. [맑은]거랑 [뜻이 높고 고상한]거랑은 다른 거죠. (나)에서는 [시련과 맞서 -> 견디고 -> 극복해냄]이므로 맞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④

->[화해], [대결]

⑤

->[거부]->오히려 수용 -> 견딜 -> 극복]으로 보는게 더 적절하네요.

->오답 발문이 되는 포인트만 잡는 연습하세요. 어차피 애매하게 낸 부분은 애마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항상 [명시적 오답 발문]을 주니까 그거에 주목하고 민감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23번 : ④

->두 작품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은 없네요. [화자의 인식]에 따른 사상 전개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①

->(가)에서 [희고 푸른 즈음을 노래하며 -> 청각]이므로 맞죠.

②

->오랜만에 [음보율] 건드렸네요. 고전 작품은 정형시라 음보율이 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은 자유시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고전적인 선지네요. 약간 내신틱한.

③

->(가)에는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 붙고]정도만 대구로 볼 수 있는 반면 (다)에는 씬 없이 나오네요. [굽어 보면 천심 녹수 / 돌아보니 만첩 청산], [청하에 밥을 싸고 / 녹류에 고기 꿰어 / 노적 화총에 배 매어 두고], [산두에 한운 일고, 수중에 백구 난다]에 나타나네요. 대구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예요. 1행이라고 [한 문장]이 아니예요. 착가하시면 안 되어요ㅠ. 이어진 문장이잖아요ㅠ

⑤

->맞아요. 굳이 안 찾아드려도 잘 찾겠죠. (가) [자랐어라 ->감탄형 종결어미] + [너조차 미친들 어떠랴 -> 설의법 -> 영탄법에 속함], (다) [-랴, ~여라, ~는고, ~실가,~로다 등] 너무 많네요.

24번 : ④

->이 문제 맞췄으면 칭찬해요:) ④이 오답이죠.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는 <보기>발문에 있는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고 자람 -> 지사적 가풍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 ->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 삶과 시를 일치]와 대비되는 선지죠. <보기>발문에서 알 수 없는 정보일뿐더러, 오히려 반대되는 것에 가까운 선지네요. 지문에서 생각해봐도 [노래 가락은 흔들리고, 별들 춤다 얼어붙고 = 부정적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노래 가락이 흔들리는 게 = 부정적 상황]이지, [노래 가락]자체가 슬픈 노래일 리가 없겠네요. 납득하셨나요? 뇌내망상ㅋㅋㅋ 그냥 <보기> 발문 근거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되어요. 이런 거 같고, 배경지식 써가면서 노래는 뭘 의미하고 어쩌구 저쩌구 설명해봤자 수험장에서 절대 그렇게 감상 못 해요. 제시된 발문만 보고 판단하는 연습 자주 하세요. 그게 문학에서 요구하는 감상의 태도구요.

①

-><보기> 발문보면 [의병장을 여럿 배출한 선대로부터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배우고 자람 -> 그러한 그가 고향의 낙동강 가의 앓아] "강물의 큰 흐름"을 생각하며 ->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에 심취]라고 해요. 결국 [낙동강 가의 앓아 -> 강물의 큰 흐름 = 세상을 향해 나아간 영웅의 이야기 -> 역사적 현실]로 연결되는 선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적절해요.

②

->[너 = 소년이 준마 달리며 사랑한 것 = 곧은 기운 -> 그러한 시를 쓴 이육사의 중요한 가치관 -> 선대에게 배운 대의 명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 = 지사적 가풍 -> 선대로부터 배우고 익힌 기상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적절해요.

③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소년 -> 동상답게 서 봐도 좋다 -> 동상은 뭔가 긍정적인 것 -> <보기>발문과의 연결 -> 대의명분, 지사적 삶, 민족사의 부활을 믿고 이를 위해 헌신한 그의 삶 ->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신념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적절하네요.

⑤

->[별도 춤고 노래 가락 흔들림 -> 너조차 미친들 어떠라 -> 너한테도 그러한 추위가 미친들 어떠라 -> ○○ 노상관 -> <보기>발문과 연결하면 극복의지]라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POINT>

지금까지 봤던 모든 선지 통틀어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지만, 결국은 제시된 텍스트를 얼마나 [평가원이 요구하는 감상의 틀에 맞추어 판별]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이런 선지를 틀리는 이유가 [시인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못해서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ㄷㄷ 저런 감상을 수험생이 수험장에서 한다고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거는 주어진 텍스트를 얼마나 평가원이 준 기준에 끼워 맞춰서 판별해낼 수 있는가 예요. 그런 태도를 고치지 못하면 문학은 영원히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25번 : ⑤

->[내면->외부]로의 이동이 없네요. 시선의 초점은 [나무]임. 그냥 [나무]임. 나무나무트리트리트리. 사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외면 + 내면]으로의 전개가 맞죠. 단순히 나무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적상황에 자꾸 인식을 부여했으니까요.

①,②

->맞네요. 의도적 지연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렇게 지연시키면 독자는 당연히 주목할 수 밖에 없어요. "전 아닌데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라고 보셔야 돼요.

③

->맞네요.

④

->[비약 : 1. 나는 듯이 높이 뛰어오름. 2. 지위나 수준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높아지거나 향상됨]이에요. 모르면 사전 찾아보세요. 제발. [자기 온몸으로 = 혈 벗고 있음 -> 꽃 피는 몸이 됨] = [비약]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 사이에 ㉠이 있으니까 정서적 대응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침내! 드디어 존나 마침내!!!!1]처럼. [자기 온몸으로 -> 마침내 -> 꽃피는 나무가 됨]이잖아요.

26번 : ⑤

->㉠을 선택했죠.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이 없으랴 = 에이 됐다, 내 시름거리 아님, 나 말고 세상을 구제할 누군가가 있겠지 ㅅㄱ랑]이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①

->[돌아보니 -> 만첩 청산 ->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를 보면 현재 화자가 있는 곳에 돌아보니 만첩 청산이 홍진을 가림. 단절로 보기에 적절하네요.

②,③

->[월백 : 흰 달] <-> [홍진 : 붉은 먼지]이니까 대비 맞고, [만첩 청산 ->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와 같이 [만첩 청산이 홍진 얼마나 가렸나 -> 하얀 달뜨니 (홍진에 대해)더 노관심이다~]이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네요.

④

->[장안 돌아보니 -> 북궐이 천리로다 -> 어주에 누어신들 -> 잊은 때가 잊으랴 -> 없음 = 미련]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적절해요.

[2010학년도 수능 32~37번]

(가) [조지훈 - 승무]

작품 해설 : 이 시는 승무라는 불교적 춤을 소재로 하고 있네요. 승무를 추는 고운 얼굴의 여승은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으로 춤을 출 뿐이래요. 그러나 화자는 그런 여승에게서 인간사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읽어냄.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수험장에서 못 읽어냄. 인정? 인정~ 못 읽어내도 문제 풀 때 지장 없음. 승무라는 고전적인 춤을 소재로 해서 한국적인 정조, 세사사의 번뇌를 이겨내려는 인간 보편의 염원을 그려낸 작품이래는데...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어요.

(나) [송수권 - 지리산 삐죽새]

작품 해설 : 이 시에서 화자는 지리산 삐죽새 울음 소리에서 느끼는 설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가능해요. 명시적인 발문으로 설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났으니까요.) 저 먼 지리산의 한 곳에서 삐죽새가 울음을 토해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올리며, 그 울음이 지리산 정상 세석의 철쭉 꽃밭으로도 남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흠. 그렇구나. 산에서 강, 바라도 이러지는 거대한 산하가 설움으로 그득하다는 것을 화자는 자신도 설움에 잠기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시래요. 나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는 문학이랑 잘 안 맞는 거 같네요. 그래요.

(다) [송순 - 면양정가]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송순이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담양 제월봉 아래에 면양정을 짓고, 그 곳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시. 이어서 화자는 면양정의 지형적 위치를 제시한 후, 면양정 주변의 근경에서 산봉우리의 원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화자는 이렇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후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 선경후정이에요. 세속의 일은 잊고 대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라는데 저는 늘 말하지만 세속이 좋아요.)

32번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는 늘 말하지만 거의 99.999999%로 맞는 선지. 뒤에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봅시다. (가)에서는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뺀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인 양 하고 / 얇은 사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를 보면 [시각적 이미지 -> 여승의 움직임]을 드러낸다고 보기에 충분해요. (나)에서는 [섭진강 섭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 실제의 삐걱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등에 [시각적 이미지 + 청각적 이미지 -> 삐걱새의 울음소리가 봉우리를 넘어가는 모습을 동적으로 표현]이 락 보기에 충분하네요. (다)에서는 [마치 용이 일어서는 듯, 학이 두 날개를 벌리는 듯, 하얀 비단을 펼쳐 놓은 듯]등에서 [시각적 이미지 -> 면양정 주변의 모습을 동적으로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적절해요.

①

->세 작품 모두에서 화자의 [단호박 의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보통은 단호박 의지는 어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겠다, ~테다, 리라]와 같은 어조가 드러나면 대부분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②

->[과거<->현재의 대비]는 세 작품 모두에서 드러난다고 보기 힘들어요. 또한 그리움의 정서도 드러난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보통 그리움이란 [대상과의 이별, 대상의 부재 -> 그리움]과 연결이 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④

->[대립적 시각 -> 긍정적 상황 인식] 모두 없음.

⑤

->역설적 표현이 드러난 것은 (가)에서 밖에 없네요.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서요. [고와서 -> 서럽다]라는 부분은 역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가)에서 헛갈리더라도 항상 핵심은 나머지 명시적 오답 근거를 찾는 것. (나)와 (다)를 확인해주고 가볍게 지워주셨으면 됩니다.

33번 : ②

->핵심은 [상승 이미지]가 되겠네요. [흐르는 빛]은 [위->아래]로 이동하죠. 따라서 [하강 이미지]로 보는 게 적절해요. 명시적 오답 발문만 보면 개쉬운 선지죠. 선지의 나머지 발문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빈 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 달이 지는데 -> 소매는 ~ 외씨보신이며 ->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 오고 -> 복사꽃 고운 뺨에 ~ 별빛이라]를 보면 [어두운 밤 <-> 무녀를 묘사하는 표현에서의 다양한 빛]이 나타나네요. 즉 어두운 배경과 그러한 배경에서의 무녀를 묘사하는 빛을 통해서 [어두운 밤 -> 무녀를 비추는 다양한 빛의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가 적절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또한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레 관객의 시점은 빛으로 모이게 되므로 [무녀에게 집중되게 한다]라는 이해 역시 적절하다고 보기에 충분해요. <보기> 발문에서 [승무는 무녀를 무대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관객이 이를 바라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무녀와 그의 춤을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빛이 동원되어야 한다.]와 연결지을 수 있는 선지죠.

③

-><보기>에서 [이 작품에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 ->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음 ->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함]라는 발문이 근거가 되겠네요. 지문에서 [말없이 녹아내리는 황촉불 + 기우는 달]은 모두 [하강 + 소멸]의 이미지라고 보기에 충분하죠. [초가 녹아내리면 -> 하강&소멸 + 달이 기우면 -> 하강&소멸]이니까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그러한 하강&소멸 이미지 -> 다양한 상징적 의미 전달 -> 그 의미가 유한한 인간 존재]라고 보기에 충분하네요.

④,⑤

->6연~7연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 오고 -> 세사에 시달려도 -> 번뇌는 별빛이라]를 보면 [시적 대상 = 지상의 존재 <-> 먼 하늘의 별빛 = 천상의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상의 존재인 무녀는 하늘의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승무를 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또한 지상에서 무녀는 [세사 -> 번뇌]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되는 [천상 = 별빛]은 그러한 번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지향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별빛을 바라보는 무녀의 눈동자와 같은 표현에서 그러한 천상에 대한 무녀의 지향을 판단할 수 있네요. 따라서 ④, ⑤은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으며 <보기> 발문에서 [지상과 천상 + 더 나아가 내면세계를 비추고 있다 + 이 빛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고]와 같은 발문을 통해 <보기>에 근거한 적절한 감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즉 [무녀의 까만 눈동자가 한 개의 별빛을 향함 -> 번뇌에서 벗어난 해탈의 세계를 지향]이라고 보면 되며,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별빛에 모두오고]가 [눈물, 번뇌는 별빛이라]와 이어지면서 [별빛 -> 무녀의 눈과 연결 ->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줌]이라고 보면 되네요.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34번 : ⑤

->(가)에서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나 -> 파르라니 짝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고 ->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를 보면 무녀는 승무를 추면서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서러움]의 정서는 [빈 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 [이 밤사 귀뚜라리도 지새는 삼경인데 ->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나]를 보면 시의 마지막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밤]이라는 배경이며, 여전히 무녀는 [두 방울]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 귀뚜라미가 우는 밤에 무녀는 [얇은 사 ~ 나빌레나]와 같이 앞 연에서 말한 [서러움]을 느끼면 추던 승무를 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승무의 시간적 배경인 [밤 -> 이 밤사 귀뚜라리도 지새는 삼경인데]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밤을 지새우는 귀뚜라리의 소리를 통해 -> 설움을 환기]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에서는 1연 [뻘꾸기가 -> 울음 울어 -> 석 석 삼년도 더 넘겨서야 ->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뻘국새임을 알아냄] -> 2연 [지리산 하 -> 실제의 뻘국새가 한 울음 토해내면 -> ~받아넘기고 -> 여러 마리의 뻘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아냄] -> 3연 [지리산 중 ->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 4연 [섬진강 -> 하동 남해 ->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았다] -> 5연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 지리산 하에 올던 한 마리 뻘국새 울음이 ->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 철쭉꽃발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를 보면 [뻘국새의 울음 = 길쁜 설움]인데 그러한 설움은 마지막 연에서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로 연결되며 시상을 구체화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리산 -> 강 -> 섬진강 -> 하동 남해 -> 남해 군도]를 통해 시상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 -> 철쭉꽃발을 다 태움]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철쭉꽃의 색채 -> 앞행에서 제시한 설움을 환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① ->[역사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가 명시적 근거가 없는 발문이네요.

② ->[주술적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됨]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네요. [주술적]이란 [[관형사명사] 주술에 관련된. 또는 그런 것.]인데 해당하는 부분이 작품에는 드러나지 않죠.

③ ->[비판 의식]이 오답인 발문이 되겠네요.

④ ->(가)의 설움은 [두 볼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 서럽다 -> 무녀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에서의 설움은 [뻘국새 소리]라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므로 (나)를 명시적 오답 발문으로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35번 : ②

->[실제의 뻘국새가 한 울음 토해냄 -> 봉우리 받아넘김 ->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뻘국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이므로 [상반되 의미]가 아니라 [확장된, 심화된 의미]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①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뻘국새임을 알아냈다.]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합니다.

③,④ ->[지리산 하 ->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뻘국새가 한 울음을 토해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여러 마리의 뻘국새로 울음 우는 것] -> [지리산 중 ->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 -> [섬진강 섬진강 작은 물줄기가 ->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 -> 남해 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통해 각 연의 첫 행들은 각 연의 시적 공간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시상의 통일성은 부여한다고 보기에 적절하다. 또한 그러한 시적 공간들은 각 연에서 잇달아 연결되고 있으며 [뻘국새 울음이 확대 됨 = 변화 & 강이 열리고 섬을 밀어 올림 = 생성]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⑤ ->오 맞네요. [~를 보았다]는 [~ 알아냈다]와 유사한 의미로 화자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아내고, 보게 되었다는 의미네요. 따라서 [깨달음의 의미 강조]라는 선지를 판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됩니다.

36번 : ①

->[~인 듯]은 직유법이 맞고, 시각적 이미지를 직유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네요. [A]에서는 직유를 사용하지 않았죠. 의인화를 사용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② ->음보울은 [B]에 드러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죠.

③ ->[A]에는 도치가 없어요. [B]에서는 [무슨 일 바빠서 어디로 가노라]라는 부분이 도치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④ ->[반어 -> 냉소]는 모두 없어요.

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B]에서만 [~노라]와 같은 감탄형 종결어미를 통해 영탄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를 통해 자연에서의 감흥을 나타낸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37번 : ③

-><보기>발문에 없는 감상이죠. [이상을 펼치기에 이미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은 <보기>발문에 따른 감상이 아니에요.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자연 세계를 통해 ->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내는 가운데 -> 조화와 합일을 추구]라고 했으므로 오답이 되겠네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죠.

①

->[제월봉이 되었거늘 -> 무변대야에 (제월봉이) 무슨 짐작 하노라] + [<보기> 객관적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 ->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을 연결시키면 적절한 감상이네요.

③

-><보기>에 [면앙우주는 작가에게 천지 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에 따른 감상으로 보기에 적절합니다.

④,⑤

-><보기>에 [면앙우주는 ~ 내면화하는 공간이었다 + 자연 세계를 통해 인간 세계의 이치를 읽어 내는 가운데 조화와 합일 추구]에 따른 감상으로 보기에 적절하네요.

<PONIT>

33번 ~ 34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네요. 고전 문학이라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다만 선지의 발문에서의 명시적 근거를 제시된 작품이나 <보기>의 발문을 통해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감상하기 보다는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선지에서 [개소리]를 잡아내는 연습이 중요해요. :)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46~50번]

(가) [정약용 - 고시]

작품 해설 : 이 시는 제비의 말을 통해 당대의 지배 계층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네요. 화자는 제비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용만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이미 제비의 말에서 제비가 겪는 고통을 읽어낸다는 것은 꺾박받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비는 바로 착취당하는 서민층을 의미하며, 황새와 뱀은 이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지배 계층을 의미한다고 해요. 사실 '뱀과 황새 -> 뭔가 나쁜 녀석들'과 같은 느낌만 들었어도 충분합니다.

(나) [박인로 - 누항사]

조오오오올라 많이 나오네요. 내용 외울 듯.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지은이가 관직은 그만두고 시골에서 생활하던 중 두메 살림의 어려운 형편을 묻는 한음 이덕형에게 대답한 것이라고 한대네요. 조선 전기의 양반가사와는 다르게 곤궁한 생활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요. 화자는 비록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도를 즐기며 장부의 뜻은 변함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네요. <보기>보고 감상하셨으면 되어요.

<원문 현대어 번역>

가뭇이 몹시 심해 농사철 다 늦은 때에 / 서쪽 높은 눈에 잠깐 개인 지나가는 비에
길 위 흐르는 물을 반 쯤 대놓고는 / "소 한 번 빌려 주마."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을 듣고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이 없는 저녁에 허우적허우적 달려가서
굳게 닫힌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 "에헴." 하는 인기척을 오래도록 한 후에
"어, 거기 누구신가?" 물기에 "염치없는 접니다."
"초경(저녁 7시~9시)도 거의 지났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음 뽀뽀?"
"해마다 이러기가 구차한 줄 알지마는(비굴비굴) /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습다."
"공것이거나 값을 치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만 / 어젯밤에 건넌집 사는 사람이
목이 붉은 수평을 기름에 구워 내고 갓 익은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했는데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갚지 않겠는가? / '내일 소를 빌려 주마.'하고 굳게 약속을 하였기에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못하니 말씀하기가 어렵도다." (=다른 사람 빌려주기로 함 그래서 너 못 빌려줌 ㅇㅇ링 이 소리)
"정말로 그렇다면 어찌하겠는가" / 흰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을 신고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만 짚을 뿐이로다.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북쪽 창문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 /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도다. /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벼보님(쟁기의 날)도 좋도다. / 가시가 영킨 목은 밭도 쉽게 갈 수 있으면만

빈 집 벽 한가운데 쓸데없이 걸려 있다. / 봄 밭갈이도 거의 다 지나갔다. 팽개쳐 던져두자.(농사 사비 안 해. 포기함)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꿈을 꾸지도 오래되었는데 /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 잊었도다.

저 냇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다. /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시대 하나 빌려 주셈.

갈대꽃 깊은 곳에서 밝은 달과 맑은 바람과 벗이 되어 / 임자 없는 자연에서 절로절로 늙으리라.

욕심 없는 갈매기야 나 보고 오라하고 가라 하겠는가. / 다들 이가 없는 곳은 다만 여기(=자연)뿐인가 생각하노라.

변변치 못한 이 몸이 무슨 뜻이 있겠는가마는 / 두세 이랑 밭과 논을 다 묵혀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난을 싫게 여겨 손짓한다고 물러가겠으며, / 남의 부귀를 부러워한다고 손을 친다고 나아오겠는가.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생겼겠는가. /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내 생활이 이러한 것에 서러운 뜻은 없도다.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도 족하게 생각한다. / 평생의 한 뜻이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 데는 없다.

태평한 세상에 충성한 효도를 일로 삼아

형제간에 화목하고 친구끼리 믿음을 지키며 사귀는 일을 두고 그르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응 없음~ 이게 최고임~)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생김 대로 살려 한다.

(다) [이학규 - 어떤 사람에게]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주고 있네요. 작가는 친구한테 자신이 여행 중 바라본 물가의 마을에서 노년을 살고 싶다고 함. 근데 친구가 말할길 "ㄹ 거기 내가 살아왔는데 개 별로임"이라고 하네요. 즉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다를 수 있음을 작가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친구 말 듣고 글쓰시는 "!! 오"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을 말이죠.

46번 : ②

->(가)에서 [제비 -> 집 없는 서러움 -> 황새랑 뱀 때문임 ->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이 내재], (나)에서는 [화자 -> 소를 빌릴 수 없음 +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 (다)에서 [화자 "훗날 식구들을 데리 멀리 떠나오면 근심을 잊고 노년을 마칠 수 있겠다" -> 현재의 삶에 근심이 있음 ->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 + 포원자 -> 거기 즐라 별로임 -> 시골 생활의 괴로움]을 보면 적절하다고 판단 가능하네요.

①

->세 작품 모두 [역사적 인식]은 없어요.

③

->세 작품 모두 X. (가)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나)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 안빈낙도해야지], (다)에서는 [시골 생활하면 좋겠다 -> 포원자의 말 -> 깨달음 -> 실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차이가 있구나~]이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④

->(가)와 (다)가 명확하게 없어요. (나)에서는 [세정 모르는 한숨 -> 세상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단절]이라고 보기까지는 힘들 것 같네요. 이럴 땐 뭐다? 그렇지 명시적인 오답 발문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⑤

->(가)와 (다)는 모두 없음. [자신의 삶의 태도 반성 -> 개선 -> ㄴ]. (나)에서는 [강호 한 꿈을 꾸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어버림 ->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많기도 많구나 -> ~ 늙으리라 = 다시 다짐]이므로 반성과 개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47번 : ②

->[공간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지 않아요. 공간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려면 [A -> B -> C]와 같이 명확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 사이의 이동 경로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기행문에서 보통 많이 드러나죠. 이런 이동 경로는. (나)의 화자는 시골 가난한 자기 집에서 "생활 즐라 어려움 :: πππ -> 안빈낙도해야지 = 의지"가 나타난다고 보는 게 적절하네요.

①

->[제비 = 괴롭힘 당하는 존재 <-> 뱀, 황새 = 괴롭히는 존재]이므로 적절하네요.

③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제비, 뱀, 황새]와 같은 동물들을 통해서 [풍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거 헛갈리면 개념어 교재가셔서 풍자 관련된 문제들 다시 정리하세요. 꼭. 참고로 풍자란 [정치적 현실과 세상 풍조, 기타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의 결함·악폐·불합리·우열·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적 또는 조소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국일 주간지 기본 2주차 정답&해설

④

->[갓을 쓰냐 = 안 갓을 쓰기~ / 사러오라 = 안 사러 올 쓰기~]에서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가난한 처지와 안빈낙도는 삶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⑤

->(나)에서는 [내 한을 돕는다 /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와 같이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따라서 적절해요. 감정 제시 [간접 <->직접]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개념어 교재 참고하세요.

48번 : ②

->적절하네요. ㉠은 [제비 -> 뱀이랑 황새가 괴롭혀서 집 없음 ->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에서 확인 가능해요. 제비가 말하는 걸 사람이 알아들을 리 없죠. 이것은 [화자 -> 제비의 소리 -> 백성들이 삶에서 느끼는 고통 읽어냄]이므로 기본적으로 [동정]의 정서가 드러간다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아니면 "제비 시끄럽네 ;;"라고 생각했을 듯. ㉡은 [화자 -> 친구 : 시골 생활 할 거임 -> ㉢친구의 말 : 개 별로임 ;; -> 화자 : 깨달음]이므로 적절하네요.

49번 : ④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보기>에도 지문에도 없는 감상임. 따라서 오답이죠. ㉠은 [훌륭한 군자들이 님대 하나 빌려스라 = 님대 하나 빌려주셈 -> 안빈낙도 할 거임]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오답입니다.

①

-><보기> 발문에서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와 연관시키면 적절한 감상이 되겠네요. [북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고 있음 -> 아침까지 울적함 -> 먼 들 바라보니 -> 즐기는 농가도 흥 없이 들린다 = 흥 안 남 = 시무룩 ->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 술 고기 없어서 친구 못 사귀]에서 확인 가능하네요.

②

-><보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와 연관시키면 적절한 감상이 되겠네요. [팅 빈 집 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 쟁기가 쓸데없이 걸려 있음 -> <보기>랑 연관시키면 사대부 직분을 실천하고 싶지만 지위 못 얻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화자를 나타냄]이라고 보기에 적절하죠.

[이의 제기 평가원 답변]

이 문항은 [누항사]를 <보기>에 관점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해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 농사를 지으려다 실패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은 <보기>의 관점에 따른 감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요약 : 응 뇌내망상하지 말고, 우리가 주는 <보기>에 관점으로 읽으세요~

③

->이 선지를 많이 골랐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사고 "ㅅㅂ;; <보기>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겠네요!"겠죠. 봅시다. <보기>에 따르면 [사대부의 직분 실천 노력 -> 현실적 제한 -> 점점 소외 -> 갈등 -> 안빈낙도]네요. 핵심은 [갈등]입니다. 지문을 보면 [강호한 꿈을 꾼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 갈등]이 되겠네요. 따라서 적절해요. 뒤에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늪으리라 = 다짐 = <보기>에서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선택]이 되는 거죠. <보기>발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하다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겠죠. 네.

⑤

->그래서 이 선지는 적절한 게 되는 거죠. 지문을 몽개버리지 말고, 부분에 대한 표시만 있으면 그 부분이 <보기>발문 중 어느 부분과 가장 적합한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50번 : ①

->[멀리서 봄 = 좋아보임 -> 가까이서 봄 : 어 생각했던 거랑 다름? ;;]이 핵심이죠. 따라서 ①입니다.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 형식이네요.

역시나 똑같이 감사하고, 똑같이 선지를 구체화하고, 똑같이 오답을 잡아냈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험장에서도 이렇게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화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감상 -> 응 뇌내망상 포함 됨 -> 평가원의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 -> 똑배기 뚜앙뚜앙]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죠.